

## 수시모집 경쟁률 부산지역 사립대 1위

경쟁률 7.12가 된 이유!



▶2019학년도 입학식

지난달 14일 우리 대학 수시모집이 마감했다. 올해 1,809명 모집에 12,874명이 지원하여 부산지역 사립대 중 최고의 경쟁률인 7.12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경쟁률이 가장 높게 나타난 곳은 교사추천자전형 간호학과로 18명 모집에 648명(36대 1)이 지원했다. 그다음으로 높은 곳은 6명 모집에 132명(22대 1)이 지원한 교과성적전형 경찰행정학과, 15명 모집에 327명(21.8대 1) 지원인 일반계고교전형 치위생과이다.

2022학년도 수시에는 면접이 없거나 면접일이 겹치지 않으면 수험생 1명이 최대 6개 전형까지 중복으로 지원할 수 있다. 문·이과 교차지원이 가능하며 수는 최저 등급 적용이 없다. 또한 일정한 학점 이상을 유지한다면 보건의료계열과 캠퍼스 아시안학과를 제외하고는 2학년, 3학년, 4학년에 전과도 보장하고 있다.

일반계고교전형은 교과 90%+면접 10%에서 교과 90%+출결 10%로 전형요소가 변경되었다. 교사추천자전형은 학생부 70%, 면접 30%으로, 실기전형은 학생부 20%, 실기 80%를 반영한다. 자기추천자전형과 SW융합인재전형은 학생부 60%(교과, 비교과), 면접 40%로 선발한다.

최근 웹툰학과가 신설되었으며 일반계고

교전형, 자기추천자전형, 교사추천자전형, 실기 전형으로 모집한다. 교과성적전형과 특성화고교전형, 사회배려대상자전형, 농어촌출신자전형, 고른기회전형은 학생부 100%로 합격자를 선발한다.

이러한 높은 입시 경쟁률이 생긴 이유는 우리 대학에서 각종 국가사업 선정, 높은 취업률, 다양한 글로벌 프로그램 등의 '미래형 대학'을 향한 동서대 10가지 변화'가 시너지 효과를 낸 것이다.

우리 대학은 '비모 동서 에프터 동서'를 내세워 영화 및 영상콘텐츠, 디자인, 글로벌비즈니스 분야 등에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동서 비전 2030에 따라 ▲미래형 대학 ▲글로벌화 ▲만족도 제고 ▲대학 운영 시스템 선진화 ▲지역사회 공헌 등의 혁신 과제를 통해 미래형 대학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가장 큰 비전은 특성화로 캠퍼스 안에서 만 머무는 '책상머리 특성화'가 아닌 부산의 발전 방향과 함께 실질적인 산학 협력을 포함한 것을 추구한다. 2012년 부산 해운대 센텀시티에 캠퍼스를 오픈하여 일체적인 산학 연계와 주변 기업과 함께 '실질적 특성화'를 위해 노력했다. 인권대학과 예술대학은 차별화된 교육으로 영화·영상과 관련된 최신 시설과 기자재를 갖춰 현

■2022학년도 수시모집 경쟁률

전형명	모집인원	지원인원	경쟁률
일반계고교	616	5,627	9.13 : 1
교사추천자	368	2,233	6.07 : 1
교과성적	256	1,674	6.54 : 1
특성화고교	95	959	10.09 : 1
사회배려대상자	55	404	7.35 : 1
자기추천자	94	636	6.77 : 1
SW융합인재	23	52	2.26 : 1
실기	302	1,288	4.26 : 1
정원내 소계	1,809	12,873	7.12 : 1
정원의외			
농어촌출신자	52	216	4.15 : 1
특성화동일계출신지	31	154	4.97 : 1
고른기회	32	172	5.38 : 1
정원의외 소계	115	542	4.71 : 1
총계	1,924	13,415	6.97 : 1

장 중심의 맞춤형 실무교육을 실시한다.

영화, 뮤지컬의 제작과정을 커리큘럼을 통해 배우고 바로 실무에 투입할 수 있을 인재를 양성한다. 2018년 관광계열도 캠퍼스를 옮겨 관광 관련 기업과 함께 공동교육, 인턴십과 같은 다양한 협력 프로그램을 도모했다. 이를 통해 아시아 최고의 고부가가치 캠퍼스가 거듭나 한국을 대표하는 관광 교육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교수, 강의, 시험이 없는 새로운 형태의 강의인 PBL 기반 X클래스도 진행되고 있다. 이에 김종건 기획연구처 부처장은 "우리 대학은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으로 전교생에게 인공지능과 코딩 교육을 실시하는 등 4차 산업혁명에도 착실히 대비하고 있다"면서 "이미 수년 전부터 준비한 우리 대학의 미래형 대학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경쟁력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직무 체험이 중요한 시대에 현장실습을 강화하지만, 현장에서의 사고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우리 대학은 발상을 전환하여 현장실습 공간을 아예 학교 안에 마련하는 등의 노력을 했다.

이 외에도 최첨단 교육인프라를 통해 최상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2번

건물, 14번 건물, 24번 건물을 비롯하여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의 민석도서관은 부산, 경남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인 취직업 지원에도 힘을 쓰고 있다. 대학일자리센터를 운영하여 재학생 및 졸업생들의 취업 매칭과 더불어 일 경험 체험 확대, 기업체와의 긴밀한 산학 교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청년고용정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코로나19라는 재난 상황에도 블렌디드 방식을 혼용하여 진로 취업 컨설팅, 비교과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지역 청년들로부터 높은 만족도를 얻기도 했다.

장재국 총장은 "미래형 대학으로 파급하게 변신하고 있는 우리 대학의 잠재성을 높게 평가해 지원해 준 많은 수험생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대학은 머리로 배우고 가슴으로 느끼고 손으로 일하는 교육을 달성하기 위해 특성화 교육, 인성교육, 국제화 교육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며 개인의 달란트를 개발하는 데 힘쓰고 있다. 특히 국제화에 주력해 세계 어느 무대에 내놓아도 통하는 인재로 키워내겠다"고 밝혔다.

이유진 기자  
yujin6244@gmail.com

## 비대면 시대 발맞춘 아이들을 위한 개발

영상애니메이션학과와 협업을 통한 가상현실 프로그램



▶조리 종사자의 위생관리 가상현실

우리 대학이 해운대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함께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급식 교육 문제 해결하려 힘을 합쳤다. LINC+사업단의 클래스셀링® 프로그램을 통해서 비대면 어린이 영양교육과 조리사 위생·안전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우리 대학 영상애니메이션학과와 가상현실 세계를 활용하여 비대면 체험형 콘텐츠 개발을 기획했다. 그 결과 가상현실 세계 영상 동화개발을 통해 유아기 아동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 조리 종사자의 작업과정별 위생관리를 위한 가상현실 구현이라는 결과물을 만들어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등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철저한 위생관리 및 영양 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한 기관이다.

클래스셀링®이란 지역 및 기업의 수요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연성 있는 산학협력과정을 개편하여 학생의 실무능력을 향상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 프로그램이다. 기업이 요청하는 교과목을 개설, 지도교수와 기업이 공동으로 학생들을 지도하며 수업을 통해 도출된 결과물은 기업에 판매되는 '주문식 판매 프로그램'으로 문제 해결형 교과 프로그램이다. 기업 애로 기술을 해결하고 기업과 공동 프로젝트를 통해 학생들에게 현장감 있는 교과과정을 제공한다. 산학프로젝트를 산학교과

목 또는 정규과목으로 개설하여 학생들이 취업 및 기업지원 성과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수업을 통해 도출된 결과물을 판매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은 장학금으로 지급된다. 참여 학생은 수요처로부터 장학금과 동시에 문제 해결 역량을 기를 수 있으며 수요처는 참신한 아이디어와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사회적 제 해결에 이바지 되고 있다. 2021년 1학기 해운대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교육 콘텐츠 개발 외 8개 과제가 수행되었으며 2학기에는 11개의 과제가 진행되고 있다.

이 외에도 LINC+사업단은 산학협력과 셀프브랜드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산업체 수요가 반영된 다양한 산학협력 교육프로그램의 패키지화 프로그램인 ALLSUN 산학트랙, 캡스톤 디자인, 산학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나온 우수한 아이디어 제품들을 실제 제작하고 이를 직접 판매할 수 있는 이동식 판매시설인 상상마차를 운영하는 등의 다양한 산학교육 프로그램을 진행 중에 있다.

조대수 LINC+사업단장은 "클래스셀링®은 2012년 전국 최초로 동서대학교에서 기획한 프로그램으로 본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과 지역이 요청하는 과제를 해결하는 산학 공동연장 기반형 교육을 지속적으로 선도해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유진 기자  
yujin6244@gmail.com

## 아마존웹사이트 스페셜리스트 과정을 통한 인재 양성

(주)이테크시스템과 인공지능 분야 산학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업무 협약 체결하는 모습

우리 대학은 아마존웹서비스 스페셜리스트 과정 교육과 아마존웹서비스 클라우드 인공지능 분야 산학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행사에는 SW중심대학사업단 문미경 단장, 박승민 소프트웨어학과 책임교수와 함께 ㈜이테크시스템 김준성 상무이사, 아마존웹서비스 코리아 임영인 파트너 개발 매니저 및 관계자들이 산학협력 협약식에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운영되는 아마존웹서비스 스페셜리스트 과정은 우리 대학 소프트웨어학과를 중심으로 한 SW중심대학사업 참여 학생들이 클라우드·인공지능 분야 기초 및 심화 교육을 받고 ㈜이테크시스템과 아마존웹서비스 파트너사에서 장기 인턴십을 수행하는 산업체 주문형 과정이다. 그리고 아마존웹서비스 인증 국제 자격증 취득을 통하여 이테크시스템과 아마존웹

서비스파트너사 취업 시 혜택을 부여받는다.

㈜이테크시스템은 2009년에 설립되어 안정과 효율적인 경영을 기반으로 다양한 제품과 철저한 고객 우선의 기업 정신과 보다 향상된 기술 서비스 및 솔루션을 결합하여 정보통신기술 기반을 통한 고객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지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객과 동반, 발전해 나가는 정보통신 기술 솔루션 전문 기업이다.

▲고객 우선의 서비스 ▲내실 있는 기업 경영 실천 ▲신뢰받는 기업 문화 ▲고객 투자 효과 보호 등을 비롯하여 종합 정보통신 기술 솔루션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고객에게 신뢰받는 기업이 되며 이익과 가치를 창출하여 이를 주주, 지원, 사회에 환원 하고자 하는 이념을 따르고 있다.

IBM, 넷앱 등 안정성과 성능, 기능이

수행하여 서비스업무 효율성 극대화와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국내외 주요 정보통신기술 인프라 제조사와 협력하여 서버, 스토리지, 백업, 네트워크 등 각종 시스템을 공공, 금융, 통신, 제조커머셜, 방송미디어, 모바일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정보 시스템 인프라 구축 사업에 제공한다. 각종 프로젝트에서의 실적 및 경험을 바탕으로 가상화 및 아마존웹서비스 시스템에 있어 국내 최고의 기술력과 제품을 보유한 전문가 시스템 설계, 개발에서 구축에 이르는 모든 서비스를 제공한다.



검증된 세계적 정보통신기술 제조사들이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등의 하드웨어 인프라를 공급하며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부합되는 솔루션 제품과 기술지원을 공급한다. 가상화 솔루션, 오픈소스 솔루션, 백업 솔루션 등이다. 또한 고객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정보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는 정보 기술 시스템 컨설팅이나 인프라 진단 및 전략 컨설팅, 솔루션 구현 및 유지보수 등이다.

고객사의 정보통신기술 자원 통합, 데이터 통합 고객화 성공을 위한 가상화 솔루션 및 데이터베이스 솔루션 등의 최적의 솔루션을 다양하게 개발 적용하여 제공하며 정보시스템의 사전 정기점검과 사후 신속·완벽한 장애 조치로 시스템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운영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운영환경을 확보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수행하여 서비스업무 효율성 극대화와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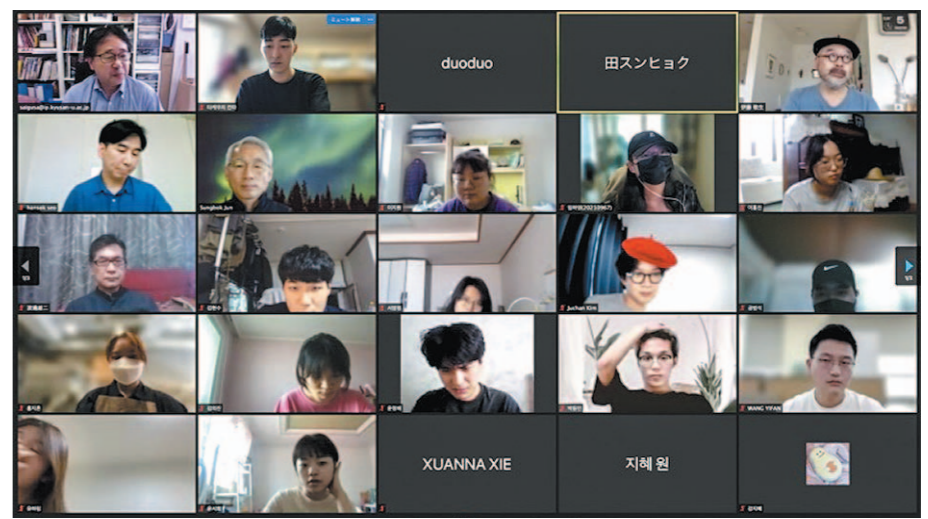
또한 국내외 주요 정보통신기술 인프라 제조사와 협력하여 서버, 스토리지, 백업, 네트워크 등 각종 시스템을 공공, 금융, 통신, 제조커머셜, 방송미디어, 모바일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정보 시스템 인프라 구축 사업에 제공한다. 각종 프로젝트에서의 실적 및 경험을 바탕으로 가상화 및 아마존웹서비스 시스템에 있어 국내 최고의 기술력과 제품을 보유한 전문가 시스템 설계, 개발에서 구축에 이르는 모든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마존웹서비스는 2006년 아마존닷컴에서 개발한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 서비스이다. 이 서비스는 전 세계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에서 목표적으로 1위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15년여 동안 세계에서 가장 포괄적이고 널리 채택된 클라우드 서비스로 인정받아 오며 모든 클라우드 워크로드를 지원하는 200개 이상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이테크시스템과 아마존웹서비스는 국내 공공기관 및 사업체에 아마존웹서비스 클라우드 서비스 솔루션 공급 및 기술지원을 하고 있다. 문미경 연구소장은 "이번 협약으로 우리 대학 학생들은 최고의 아마존웹서비스 기반 클라우드·인공지능 관련 지식과 실무지식 학습을 통해 강화된 취업 역량을 갖출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테크시스템의 김준성 이사는 "클라우드·인공지능 분야 전문 인재 양성에 큰 성과가 기대되며 많은 교육 협력과 취업 지원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자료출처 : (주)이테크시스템 홈페이지  
이유진 기자  
yujin6244@gmail.com

## 국제교류프로젝트, 첫 발걸음을 내딛다

규슈산업대, 울산대와 캡스톤디자인 수업 진행



▶화상 플랫폼을 통해 수업하는 모습

우리 대학 디자인대학은 이번 학기부터 울산대, 일본 후쿠오카 자매대학인 규슈산업대 디자인대학과 함께 '국제교류프로젝트, 캡스톤디자인'을 개설하여 첫 운영을 시작했다. '인베트 시대'에 맞춰 온라인상의 장점을 활용하며 공유 시스템을 이용한 신개념 수업 방식이다. 기존 대학교육에서의 수업 방식과는 다르게 디자인대학 학생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온라인을 통해 국제교류, 학생교류, 학점교류 기회를 제공한다는 부분에서 주목할 만한 점이다.

올해 2학기 16주 동안 금요일, 토요일마다 진행하며 버려진 것을 디자인하여 쓸모 있고 아름답게 다시 쓸 수 있게 만들어 내는 '순환 디자인' 수업이다. 이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전공 구분 없이 각 대학 희망 학생들의 신청으로 이루어졌다.

시대적 흐름에 맞는 테마와 결과물을 도출하며 각 대학의 교수를 피드백과 학생들의 토론, 토의 형식으로 운영된다. 또한, 국내외의 다양한 분야의 산업계 현장 디자이너 또는 학계 권위자를 초빙해 학생들에게 선진 디자인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우리 대학 21명과 울산대 22명 규슈대 14명 총 57명이 참여한다. 대학별 교수가 2주씩 수업을 번갈아 맡아 6주간 강의를 진행하고 남은 10주는 학생들이 조를 만들어 공동 과제를 수행하고 이를 결과물로 제출해 평가받는다.

장재국 총장은 "코로나 일상 시대에 대비해 해외 자매대학이나 국내 대학들과 연계해 온라인 수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유진 기자  
yujin6244@gmail.com

# 최고의 화이트 해커를 가려라!

웹서비스 정보보안 경진대회 '대상' 쾌거!



▶정보보호학과 4학년 강동석 학생

한국남부발전(주)과 국가정보원 지부, 정보보호 영재교육원이 공동 주관한 '제2회 KOSPO 웹서비스 정보보안 경진대회'에서 우리 대학 정보보호학과 강동석 학생이 속한 팀이 대상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정보보안 분야 꿈나무 양성 및 발굴을 위한 이번 대회는 지난 5월 부산시·국가정보원 지부·남부발전 등 6개 기관이 참여한 '지역 사이버보안 발전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번 경진대회는 전국 대학생 및 청소년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한 대회로, 7월 5일부터 8월 1일까지 접수를 진행했다. 지원자들은 정보보호 영재교육원의 자격 검증 후 대회에 참가자격을 받을 수 있었으며 남부발전에서 마련한 실제기관에서 운용중인 누리집과 유사한 환경의 취약점 점검을 주제로 진행됐다. 대회는 테스트 환경에 맞춰 변경된 운용 시스템을 모의 해킹하는 온라인 '해커 챌린지' 방식으로 진행됐다.

주최측은 정부기관에서 국가, 공공기관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보보안 관리실태평가'의 평가항목에 기재된 '취약점 평가' 항목에 얼마만큼 근접한지의 발견에 초점을 두어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밝혔으며 취약점 내용 제출 우선순위 등의 기준지를 부여해 고득점순으로 시상자를 발표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7개팀이 참가했으며 222명의 미래 화이트 해커 인재가 참가한 전국 단위 규모로 진행됐다. 각 팀은 남부

발전에서 마련한 누리집의 취약점을 찾아 보고서를 제출했고, 분석된 취약점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심사로 12개 시상팀을 선발했다.

'제2회 KOSPO 웹서비스 정보보안 경진대회' 시상식은 9월 2일 부산 벡스코에서 진행됐으며 각각 대학 부문 대상에 400만원, 청소년 부문에 100만 원 등 총 1,400만 원의 상금과 부상을 수여했다.

대학 부문 대상은 우리 대학 강동석 학생이 속한 '충주도지사' 팀이 최우수상은 '웹슬랭가이드'와 'TKH' 팀이 수상했으며 우수와 장려 포함 총 8팀이 수상했다. 청소년 부문은 대상팀인 '안녕세계!' 팀 포함 4팀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대학부문 대상팀 수상자인 강동석 학생은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많은 경험을 쌓게 됐다"라며 "향후 취업을 위한 좋은 발판이 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대회를 주관한 한국남부발전(주) 이승우 사장은 "이번 대회는 디지털 융합 인재 양성의 중요한 과제로 여겨지는 화이트 해커 꿈나무들을 위한 경연장이다. 남부발전과 참가자들의 보안 역량 향상은 물론, 지역 상생과 동반성장을 위한 모범사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동석 학생이 속한 '충주도지사' 팀은 BoB팀을 재구성한 팀이다.

BoB팀은 작년 1년간 강동석 학생이 참가한 차세대 보안리더 양성 프로그램 Best of the Best(이하 BoB)을 말하며,



▶시상식

▶사진출처 - 부산경제신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정보기술연구원이 주관하는 정보보안최고의 화이트 해커 양성 프로그램이다.

BoB는 서류전형, 인적성검사, 필기시험, 심층면접으로 구성해 엄선하여 교육생을 선발하며 합격자들에게 전액 무료로 최고 보안 전문가에 의한 단계별 멘토링 프로그램과 스타트업 교육 및 창업지원, 실무중심의 프로젝트 수행 및 교육, 국내·외 명사특강 교육을 진행한다. 또한 최신 노트북과 학업지원금, 최고인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인증 및 수료증, 해외연수 프로그램(국제 보안 컨퍼런스) 참가 등의 특전을 제공한다.

지난해에도 강동석 학생은 BoB에서 스마트 취약점 점검과 TRIDE 위협 모델링을 이용한 스마트 팜 위협 분석 및 보안 요구사항 연구 논문, 스마트 농업보안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제작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한 바 있다.

우리 대학은 경찰청과 함께하는 동백 ICT 봉사활동과 교내 학생들을 대상 진행되는 '암호 크랙/포렌식 경진대회', '온라인 해킹 경진대회'를 개최해 학생들의 실천 감각을 키우고 실력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정보보호학과는 경찰청과 연계한 사이버경찰보안 연계 전공을 공동개설해서 복수전공과 부전공을 이수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국제산업보안정보협회 주최하고 우리 대학 LINK+사업단과 공학교

육혁신센터가 주관한 '국제산업기밀보호관리사 1급 자격증 과정'을 2016년부터 개설해 정보보안, 법의학, 탐정학 관련 전문가들을 확보해 강의를 진행하는 등 학생들을 정보보안 전문가로 양성하기 위해 아낌없는 노력을 하고 있다.

우리 대학의 노력에 답하듯 올해 정보보안학과 졸업생들은 ㈜인카인터넷, 국가보안기술연구소, ㈜SK인포세, ㈜안랩, ㈜TISS, ㈜소만사, ㈜윈즈, ㈜삼성SDS 등의 기업에 정보보안 분야로 대거 취업했다.

정보보호학과는 세계 수준의 정보보안 인재 양성을 위해 2022년까지 세계 수준의 정보보안 인력 대 40명 연간 배출, 국제자격증 CISSP, CISA, CCIE, ACE 취득지원, 국내 Top 수준의 정보통신, 정보보안 특성화를 교육목표로 두고 있다.

전자기기의 높은 보급률로 인한 디지털화의 가속화로 보이스피싱, 해킹 등의 정보보안 문제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는 시대에 화이트 해커는 정보보안의 취약점을 해결해주고 보완해 줄 수 있는 직업으로 각광받고 있다.

우리 대학에서 정보보안 분야에서 주목받는 학생이 나온 것에 기쁨을 표하며 차세대 정보보안 분야를 이룰 인재로 성장해 나가길 기대한다.

자료출처 : 한국기술정보연구원 한국남부발전(주) 김경은 기자 ymacom10@gmail.com

# 부산 관광 트래블톤 2년 연속 '대상'

인공지능 기반 고객 맞춤 의류 대여 서비스



▶'Fit in travel' 팀

관광학부 관광경영전공 학생들로 구성된 'Fit in travel' 팀이 부산관광공사에서 주최한 '2021 부산 관광 트래블톤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부산관광공사에서 주최한 '2021 부산 관광 트래블톤 경진대회'는 비즈니스 모델을 실제로 기획해보는 관광 아이디어 경진대회다. 부산대, 경북대, 동아대 등의 대학이 참여했으며 우리 대학 전민욱, 임민식, 이민우, 김민수, 정아연, 김규영 학생이 속한 'Fit in travel' 팀은 2회 연속 대상이라는 쾌거를 이뤘다.

'2021 부산 관광 트래블톤 경진대회'는 부산 대학생 관광 창업스쿨을 수료한 학생들이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대학별로 팀을 구성 관공해 서비스를 주제로 사업화 할 수 있는 모든 아이디어가 가능해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나왔다.

대상을 받은 'Fit in travel' 팀의 '인공지능 기반 고객 맞춤 의류 대여 서비스'는 부산 관광의 약점인 겨울철 비수기 극복을 위한 배경에서 출발하였으며, 오히려 겨울철에 많이 찾아오는 동남아시아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구성됐다. 무거운 겨울철 의류의 부피를 줄이고 패션의 가치를 제고하고자 ICT 기술을 활용해 비즈니스 모델을 새롭게 기획했으며, 특히 사업 타당성 분석에서 다양한 시뮬레이션

을 한 부분이 심사위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2021 부산 관광 트래블톤 경진대회' 최우수팀에는 2022년도 부산 관광스타트업 공모에 참가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해 실질적인 창업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부산관광공사는 밝혔다.

수상한 'Fit in travel' 팀은 한국관광공사 사장상과 부상으로 100만 원의 상금을 받았다. 전민욱 학생은 "처음에 사업 컨셉을 잡는데 많은 시간을 소비했고, 코로나 4단계까지 걸치면서 어려움이 많았지만, 희망을 잃지 않고 진행한 노력들이 성과로 나타나 기쁘다"며 "선배들의 대상 수상을 이어받아 우리 대학의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 더욱 흐뭇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번 트래블톤 경진대회를 지도한 관광경영전공의 권정욱 교수는 "그동안 4차 산업혁명(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조기 대응하기 위해, 교과목을 개편하여 스마트관광, 여행 플랫폼, OTA 등에 적극 대응하는 역량을 배양해 온 결과로 조금씩 나타나고 있어 뿌듯하며, 앞으로도 관광벤처기업을 위한 인재를 통해 공동교과목 운영, 인턴십과 취업과 연결시켜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경은 기자 ymacom10@gmail.com

# 인디 오락계를 사로잡다!

졸업작품으로 이름을 알린 미래의 오락 제작자들



▶오락 'ABYSS'



▶오락 '컬러렌즈'

게임학과 재학생들이 국내 대표 인디 오락 대회 '부산인디커넥트페스티벌'과 글로벌 인디 오락 제작 경진대회 'GIGDC'에서 빛나는 성과를 거뒀다.

'부산인디커넥트페스티벌 2021(BIC Festival 2021)'은 온·오프라인 페스티벌을 진행했다. 사전체험을 포함한 행사 기간 동안 전 세계 42개국에서 누적 131만 9887회의 조회수를 기록해 최고치를 달성하며 역대 최고 성과를 거두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수상한 작품은 유튜브 '한국환경공당 페스티벌관리처' 채널에서 볼 수 있다. 우리 대학 방송영상학과는 교육부 산하 대교원 주관 산업계 관성 대학평가에서 미디어 분야 최우수학과로 2015년과 2019년에 선정된 바 있다. 또한 '미디어아닷' 기반 교내현장체계를 통해 PD, 작가, 촬영, 편집 등 직무별 영상 제작 실무교육을 실시하며 졸업 전 준 경력급 우수 인재 양성에 주력하고 있으며 이론과 실무능력을 겸비한 현장 출신 교수진의 지도 아래 재학생들이 제작한 영상 콘텐츠들 연간 150여 편씩 자체 OTT 서비스인 모카TV를 통해 미국, 프랑스 등 전 세계 15개 국가로 송출하고 있다.

김경은 기자 ymacom10@gmail.com

다. 함께 게임을 만들어온 팀원들, 아이디어 제공과 큰 도움을 주신 이종훈, 이병춘 교수님께 감사를 포함한다"라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Memorial'은 사람들의 꿈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의사 프래드리이 자신의 능력으로 사건을 해결해나가는 내용이다.

디지털콘텐츠학부 4학년 정재홍 학생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인디 게임 공모전인 BIC 루키부문에 선정되어 아주 영광입니다. 2년전 BIC에 직접 참여하여, '나도 이런 곳에서 작품 전시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컬러렌즈'로 일반부문 수상을 했다. 게임학과 3학년 조옥래 학생은 "먼저 저희 팀원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컬러렌즈는 2020 BIC 게임전에서 만난 팀원들과 게임을 좀 더 개발해 출시를 해보자는 의견을 모아 계속 개발 중인 작품입니다. 1년간 겨우 주말에 모여 개발하는 것이 힘들었지만, 개발해온 게임이 '부산인디커넥트페스티벌'에 선정작으로 뽑히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컬러렌즈'는 퍼즐을 풀어 미궁에서 탈출하는 내용으로 다채롭고 흥미로운 뎀에서 색깔 친구들을 분해, 합성하고, 다양한 아이템을 이용해 탈출하는 재미 요소를 가지고 있다. 루키부문은 신예민, 박진수, 이도원, 송민성, 김지원, 류현민, 김나현, 설석준으로 구성된 'Team Dr.'가 작품 'Memorial'로, 정재홍, 손정국, 김지환, 문동호, 김상준, 조용진, 안우주 학생으로 구성된 'TWO LEAF'가 작품 'ABYSS'로 루키부문을 수상했다.

게임학과 4학년 김지원 학생은 "BIC의 루키부문에 선정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팀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으나, 팀워크를 중요히 여기고 모두가 합심하여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 노력했습니

김경은 기자 ymacom10@gmail.com

# 공모전 어렵지 않다! 연구회 학생들의 도전!

방송영상학과 다큐연구회 학생들 환경부 주최 공모전 최우수상



▶수상한 다큐연구회 학생들

우리 대학 방송영상학과 다큐연구회 소속 재학생들이 환경부 주최 '2021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영상(창작술포넌츠)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환경부와 한국폐기물협회는 음식물쓰레기 감량 실천문화 확산을 위해 '2021년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영상(술포넌츠) 공모전'을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대국민 공익광고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및 올바른 분리배출에 대한 아이디어 ▲음식을 만드는 사람과 나누는 사람이 행복하고 음식물쓰레기 없는 깨끗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주제를 주제로 개최됐다. 규격은 참가자가 직접 기획, 제작한 주제를 담은 영상물로 광고, 티셔츠, 뉴스, 드라마, 다큐멘터리 등의 형식으로 스토리가 있는 15초 이내의 숏폼 영상으로 제한했다. 우리 대학 방송영상학과 다큐연구회 소

속 3학년 윤정환, 2학년 안수인, 1학년 김경인, 1학년 정민서 학생은 이번 대회에 '가장 중요한 건'이라는 작품명의 영상을 제출했으며 최우수상 수상으로, 한국폐기물협회회장과 상금 100만 원이라는 쾌거를 거뒀다.

수상작 '가장 중요한 건' 영상은 그릇에 맛스럽게 담겨진 음식으로 시작한다. 그러다 음식을 핸드폰 카메라로 비추자 '예쁜 게 담긴 음식보다 중요한 건 바로 깨끗하게 비워진 그릇'이라는 자막과 함께 나레이션이 나오고, 찰카하는 카메라 셔터음이 들리자 음식이 비워지고 케첩으로 만든 미소가 남겨진 그릇으로 바뀐다.

다큐연구회팀은 음식을 즐길 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음식물을 남기지 않는 것이라는 의미를 담아 영상을 제작했다고 전했다.

이번 수상은 코로나19로 교내활동이 어려운 때에 학생들의 주도로 이루어진 성과



▶수상작 '가장 중요한 건'

라 더 뜻깊다. 수상한 학생들은 연구회 활동의 일환으로 회원들의 기량 향상 목적으로 공모전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학생들은 "주제에 따라 회의 후 바로 촬영일을 잡고 촬영했고 그 자리에서 편집하는 등 즉흥적인 사항도 매우 많았다"라며 준비과정을 전했다.

다큐연구회 회장이자 이번 대회 수상자인 윤정환 학생은 "코로나19로 많은 제약이 걸려 촬영일이 촉박한 활동이 매우 어려웠지만 약조된 속에서도 최선의 방법을 찾아 뜻깊은 활동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했고 그 결과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라며 기쁨을 드러냈다.

또한 "상을 받는다는 것은 언제나 기분 좋은 일입니다. 제가 총괄한 작업으로 후배들이 첫 수상을 경험하게 되어 더욱 기쁩니다. 이번 수상을 계기로 더욱 많은 수상을 할 수 있도록 자신을 재충전하겠습니다. 같이 열심히 해준 안수인, 김경인, 정

# 생애최초 청년창업 지원사업 무더기 선정

## 전 주기 창업지원 플랫폼의 완성



▶ 손혜수 학생과 손혜수 학생의 창업 아이템 '포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난해 6월 30일부터 7월 20일까지 모집한 생애최초 청년창업 지원사업에서 우리 대학 학생들이 7명 선정됐다. 총 합격 인원인 15명에 비해서 보면 엄청난 인원이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진행한 생애최초 청년창업 지원사업이란 창업, 사회 경험이 부족한 만 29세 이하의 20대 청년 중 사업 공고일까지 창업 경험이 없거나, 공고일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이 없는 예비 창업자 그리고 2020년 6월 30일부터 2021년 6월 29일 사이에 창업한 기업 대표자인 초기 창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잠재력 있는 청년 창업자들이 사업화 자금을 활용하고 생애 첫 창업 과정을 경험하며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돕자는 취지에서 마련됐으며, 유망한 창업 인재 발굴 및 초기 창업 역량 제고를 위해 기회를 제공하고자 선정된 20대 청년들을 대상으로 창업 아이템 사업화 자금을 지원해 주고 전문가 지도와 실전 창업 경험을 전수해 준다. 그리고 청년 창업가와 공감대 형성 과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선배 청년 창업 자들과의 연결망 등을 제공해 준다. 또 이

프로그램을 참여한 우수 창업자에게는 2022년 예비창업패키지, 초기창업패키지 사업 신청 시 서류평가를 면제받는 혜택과 함께 예비 창업자에게는 최대 1천만 원, 초기 창업자에게는 최대 2천만 원의 지원금이 제공된다.

이 프로그램은 전국 7개 권역 10개 대학을 초기 창업자 분야 주관 기관으로 선정했는데, 그중 동남권에서는 우리 대학이 유일하다. 이는 최근 5년간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과 초기창업패키지의 성과를 인정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우리 대학의 학생 창업자는 늘고 있는 추세다. 지난 2020년에는 17명의 학생 창업자를 배출했다. 이는 창업 문화 활성화를 위해 실전창업프로젝트, Biz-Make 창업동아리, 실험실 창업 페스티벌 등 다양한 단계별 맞춤형 지원 창업 프로그램을 꾸준히 운영한 결과다.

우리 대학은 3년간 중소벤처기업부의 초기창업패키지 지원사업,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운영사업, 그리고 교육부와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의 실험실 창업선도대학사업에 선정돼 창업 교육을 실제 창업으로 연결하

는 전 주기 창업지원 플랫폼 검증이 완료됐다. 또 2021년에는 창업보육 관련 사업인 BI 운영지원사업 등에 추가 선정돼 청년 창업자 육성을 위한 최상의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지난 8월 개최한 설명회에서 최종적으로 선정된 예비 창업자 15명을 대상으로 실시간 대화가 가능한 확장 가상 세계 플랫폼 '메타타운'을 통해 예비 창업자 간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부산센터 및 사업 소개, 전반적인 사업 진행 일정 공유, 사업비 진행 과정 안내 등을 진행했다.

7명의 선정자 중 초기창업 분야 선정자인 디자인학부 4학년 장희찬 학생은 캠프용 만능 보조배터리로 선보였다. 핸드폰 충전뿐만 아니라 선풍기, 드론 등 캠핑, 야외 활동 시에 필요한 물품을 장작처럼 활용성을 높인 제품이다. 장희찬 학생은 "학교와 사업을 병행하는 것과 시제품을 보완해 시장에 내놓기까지의 비용 부담에 많은 어려움을 느꼈는데, 창업동아리 활동과 창업지원단의 도움으로 창업지원형 기숙사와 사무공간을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또 "창업 활동에 집중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준 학교 덕분에 이 활동에 선정돼 지원금까지 얻게 된 것 같다"며 기쁨을 드러냈다. 세계 최상위권 누리랑 속도 등의 국내 환경을 활용해 착한 기업이 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예비창업 분야 선정자 중 디자인학부 4학년 손혜수 학생은 감자로 만든 친환경 오감놀이 '포슬(Posle)'을 선보였다. 포슬은 감자의 점탄성이라는 성질과 감자 분말, 과일 분말 등의 식용이 가능한 안전한 소재들만을 사용해 만든 유아용 오감놀이 제품이다. 손혜수 학생은 "교내 창업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창업에 대해 눈을 뜨게 됐다. 창업지원단을 통해 창업에 대한 정보들과 경제적 지원을 받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본 제품을 통해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착한 제품을 제공하고, 재미있는 놀이와 교육을 동시에 제공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말했다.

두 학생 모두 제품을 구체화시킨 후 와디즈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제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김규리 수습기자

### ▶ 교내 직업인 인턴십 - 동아시아학과 박준성 학생

#### 스마트 스토어-과일 도소매

질문. 안녕하세요.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짧은 헬기로 새벽에 물건을 선별 후 당일 들어온 신선한 과일을 배송드립니다. 실천하는 사람 20학년 동아시아학과 박준성입니다!

질문. 직업이 무엇이며 어떤 직무를 수행하는지 말씀해주세요.

답변. 저는 도매집 아들의 대표직을 맡고 있습니다. 아이디어 기획, 디자인, 영업, 마케팅, 회계, 포장 모두 제가 하고 있습니다. 어떤 과일이 잘 팔리고 사람들이 좋아할지 아이디어를 기획하고 좋은 상품을 찾기 위해 직접 도매시장을 둘러보며 발로 뛰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좋은 상품을 더 알기 쉽게 설명하고 알리기 위해 깔끔하게 디자인과 마케팅을 하고 있고, 소비자가 부담되지 않는 가격을 측정할 수 있게끔 가격 측정은 물론, 가장 중요한 신선하고 안전하게 상품을 받으실 수 있게끔 포장도 직접 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업을 하겠다고 결심하신 계기가 무엇인가요?

답변. 2020년 코로나 사태가 가장 컸습니다. 코로나가 없었다면 저는 중국어와 일본어를 배우려 2021년에 중국, 일본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갑작스러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유학이 취소됐습니다. 그때 '학교나 다른 것에 의지하면 안 되겠다. 나를 믿고 나만의 능력을 키워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학이 취소된 2021년 2월부터 소싱물류공부과 과일 도매 일을 병행하며 누리랑으로 과일을 파는 나만의 사업을 준비했습니다.

질문. 사업을 시작할 때 아이템 고민이 많이 하셨을 텐데 과일 도매, 소매로 판매로 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답변. 먼저 사업을 시작하기 전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영향으로 과일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또한, 물건을 팔아야겠다고 생각했던

것은 저는 '당근마켓'에서 물건을 많이 팔아보는 취미가 있었습니다. 제가 올린 물건들이 하나하나씩 팔려나가는 것을 보고 '아 나는 사람들에게 물건을 파는 것을 잘하구나 보구나!'라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그 이후 고등학교 때 배운 디자인 능력을 활용해 과일을 판매하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질문. 도매집 아들을 운영하며 기억에 남는 일이 있나요?

답변. 도매집 아들을 운영하며 여름에 수박을 판매할 때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수박은 다른 과일과 다르게 크기가 엄청나게 크고 한번 깨지면 상품성이 완전히 떨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취급하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 시도를 해보며 안전하게 배송하는 작업을 완료하고 손님들의 반응이 좋아지고 리뷰도 조금씩 달리자 수박 단체배송 문의가 정말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매일 바쁘게 수박 포장해서 배송하며 지냈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사람들이 반대하고 꺼리는 일을 제가 제력으로 해결해 좋은 성과를 내어 자신감을 얻은 수박 판매가 크게 기억에 남습니다.

질문. 대학생 창업 선배로서 같은 길을 걷고자 하는 후배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답변. 같은 길을 걷고자 하는 후배들에게 '창업 놀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게 한번 해보고 말지'라는 마음으로 들어간다면 분명히 바로 말장 도루묵 되는 경우가 많합니다.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생각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창업하기 전 가장 중요한 것은 '불편함'입니다. 많은 사람이 불편함에 기회를 얻어 불편함을 편리함으로 바꾸면 사람들은 저절로 찾게 됩니다. 항상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불편함은 무엇인지 생각하고 자신만의 창의성, 자신만의 방법으로 불편함을 해소한다면 무엇이 되었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은 기자  
ymaocm10@gmail.com

# 4차산업혁명 시대, 인공지능으로 면접을 준비하자!

## 비대면 시대의 취업 방법은?



▶ 인공지능 면접 이미지



미래에나 상용화될법했던 인공지능 면접 관들이 코로나의 장기화에 따른 디지털 가속화로 대거 등장했다.

인공지능 면접관들은 감정을 담은 호소도 호감형 외모도, 연구주의로 인한 후광 효과도 기대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인공지능 면접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 걸까? 인공지능 면접을 대비할 방법을 알아보자.

### # 인공지능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인공지능 면접은 보편적으로 ▲자기소개 ▲기본질문 ▲성향과약 ▲상황대처 ▲보상선호 ▲전략오락 ▲심층대화로 구성돼 있다. 인공지능 면접은 표정, 말의 속도, 시선 등의 영상 데이터로 성격을 추측하고 배가기 유무를 파악한다. 또한 성향에 관한 간단한 질문도 이루어지는데, 솔직하지 못한 대답으로 응답의 일관성이 없으면 '응답신뢰도가' '응답 왜곡' 등의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상황질문에서는 질문자가 어떤 표현을 쓰느냐에 따라 직무 적합성을 평가한다. 전략오락은 작업기억력, 추론능력, 순발력, 주의력, 의사결정 유형 등을

관찰해 내면적 역량을 판단하기 위해 진행되며, 문제를 푸는 방식에 따라 어휘력의 작기가 평가된다. 예를 들어 풍선 터트리기는 직업의 면접에서는 일찍이 풍선을 터트리 위험을 낮추는지를 확인하고 영영직군에 대한 지원의도를 평가한다. 하지만 면접자들은 면접관의 반응을 볼 수 없고 기계를 향해 혼자 말하는 상황이기에 낮설고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다.

### # 기법별 인공지능 면접 활용법

많은 기업이 인공지능을 활용한 채용을 도입하고 있지만 인공지능 채용을 도입한 기업들의 활용법은 다양하다. KT는 주관적인 개입을 배제하여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NH농협은행은 효율적이고 객관적인 심사를 위해, 기술보증기금은 공정성 보완을 위해, 롯데마트는 필요 인재 부합도 분석과 거짓 여부를 통한 진실성 및 성실성 판단을 위해, 한전KDN은 중대결함에 대한 데이터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시간 단축을 위해 활용한다.

취업하고자 하는 기업의 인공지능 채용

도입 이유를 파악한다면, 그에 맞는 적절한 서류나 면접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 # 인공지능 면접을 준비하는 방법!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채용과정에서의 인공지능 기반 기술 도입은 효율성과 객관성의 장점이 있다. 인공지능이 빠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은 비용을 감소 시켜 주며, 사람 면접관보다 상대적으로 '편향 없는 판단'을 보장한다. 하지만 면접자들은 면접관의 반응을 볼 수 없고 기계를 향해 혼자 말하는 상황이기에 낮설고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인공지능 면접 준비생들은 나노 단위로 분석하는 인공지능 면접관에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긍정적 표정과 안정된 시선, 목소리 크기와 말의 속도와 발음을 연습해야 한다.

부산청년을 위한 공간 '청년두드림센터'에서는 상시 인공지능 면접 코칭 프로그램을 지원해 예약만 한다면 언제든지 인공지능 모의면접을 체험할 수 있다.

또한 취업 사이트 '잡코리아'에서도 총

분한 인공지능 면접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인공지능 면접과 분석 및 요점을 받을 수 있다.

우리 대학에서도 부산권 6개 대학의 LINC+ 사업단의 '온택트기반 인공지능 스마트 인재 양성 프로그램 공동 운영'에 대한 업무협약 체결로, 인공지능 면접 컨설팅 프로그램을 개설했다.

인공지능 면접 컨설팅 프로그램 교육은 2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1단계는 '인공지능 면접 채용 트렌드와 인공지능자소서 및 인공지능 역량 검사 스킬' 1컨설팅 등의 프로그램을 교육한다. 2단계는 '스마트 워크'를 통한 ▲비대면 회의 기법과 스마트 업무역량 ▲스마트 시간 관리 ▲개인정보 컨설팅 등을 단계별로 전문적인 내용을 제공한다.

자료출처 : 청년두드림센터  
▷사진출처 - 게이미미지뱅크  
▷사진출처 - 제네시스 뷰인터  
김경은 기자  
ymaocm10@gmail.com

## 디지털콘텐츠 분야 릴레이 특강 개최

### 최정상 전문가들의 실속 특강



▶콤마스튜디오 포트폴리오



▶드래곤네스트 포스터

지난 9월 13일부터 우리 대학 기업 애니모션은 디지털콘텐츠 분야 국내 정상 전문가들을 초빙해 연속 특강을 개최했다. 이번 특강은 재학생뿐만 아니라 디지털콘텐츠 계열에 지원한 입시생들도 함께 들을 수 있게 준비했다. 국내 최고 전문가들을 초청해 입시 홍보에 도움을 주고, 취업 경쟁력도 강화시키기 위한 목표다.

연속 특강의 첫 번째 강연을 진행한 이슬희 오락 예술가는 NC소프트의 블레이드 앤소울2, 넥슨의 천애명월도, 웹젠의 무오디2, 블리자드의 오버워치 등 유명 오락 기업에서 활약했고, 현재 최정상 프리랜서 오락 주제 예술가로 활동 중이다. 2회차 강연을 진행한 김태우 게임제작자 역시 NC소프트 선도 예술가로 활동 중이다. 남은 강연을 맡은 3회차 전 삼국블레이드 예술 지도자 김성근, 4회차 아이덴티티 게임즈 드래곤네스트 해외 서비스 김원태 본부장, 5회차 콤마스튜디오 양종표 대표, 6회차 네이버웹툰 '신의 언어' 장래혁 작가 역시 업계 관계자 및 학생들이 사랑하는 위치에 있기에 학생 및 입시생들이 큰 반응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특강은 디지털콘텐츠 분야에서도 다양한 업종에 위치한 전문가들이 노하우와 캐릭터 삽화 제작 기술 비결과 외주 전략, 작품집 제작 기술 비결, 해외 취업 전

락, 오락 예술의 비전, 취업 작품집 구성 그리고 오락 예술 기술 소통 능력 등 오락업계가 원하는 인재상이나 취업 준비 기술 비결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진행된다.

특히 강연자가 참여 학생들의 개별 작품을 보고 의견을 주는 시간까지 가져 오락원화를 꿈꾸는 학생들의 진로 방향을 설정하고, 작품집을 구성하는 데에 유리한 시간이 될 예정이다.

특강을 기획하고 추진한 소프트웨어융합대학 김병관 교수는 "이번 특강은 오락과 영상, 만화영화 등 매체 내용을 제작 업체에서 요구하는 실무 능력을 보유한 인재양성과 해당 교육에 대한 욕구가 나날이 증가하는 시류와 맞물려 전공 교육 또한 흐름에 부합해야 한다는 생각에 추진하게 됐다. 이번 특강자들은 업계에서 직접적인 채용을 담당하는 선도급이라 취업과 업계 진출을 목적으로 하는 학생들에게 업계가 원하는 구체적인 요구 사항과 작품집 준비 방향성을 제시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고, 앞으로도 이러한 실무에 근접한 교육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사진출처 - 콤마스튜디오 홈페이지  
▷사진출처 - 드래곤네스트 페이스북  
김규리 수습기자

책 속의 풍경 - 평범한 결혼생활

## 건너보지 못한 돌다리처럼 알 수 없지만



• 책 제목 : 평범한 결혼생활  
• 책 저자 : 임경선  
• 출판사 : 토스트

나의 방앗간과 같은 평화로운 교보문고에서 이 책을 발견하게 됐다. 화려한 책표지 사이에서 단정하고 책 제목과 작자의 이탤릭체로 솔직한 문체가 읽히기 시작했다. 1순위를 뒀다. 부모님이 아닌 타인이 결혼하게 된 이유에 대해 솔직하고 꾸밈없이 이야기를 듣고 싶었는데, 신기하게도 다른 연령대에 비해 20대 여성들이 많이 조회한 책이라는 통계자료를 보게 됐다. 다들 평범한 결혼생활은 어떤 것인지 나처럼 궁금함을 가지고 있었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다.

부모님을 보면 문득 대단한 어른같이 느껴졌다. 가정을 꾸려 살아간다는 것은 생각보다 많은 감내와 희생이 필요로 함과 동시에 한편으론, 나도 부모가 된다면 부모님처럼 해줄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 순간이 자주 있었다.

내 나이가 부모님이 결혼한 나이와 같아졌지만, 그때의 부모님은 나보다 큰 어른 같았는데 아직도 여전히 나는 서툰고, 미숙할 때가 많다. 다양한 현상도 더해

나 하나라도 건사하는 것은 작지만 큰 목표가 됐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고민하다 보니 시간이 갈수록 결혼은 마치 원석이 다듬어진 보석들만의 이야기 같아서 낯설기만 생각했던 것 같다.

예를 들면 결혼을 하려면 어떤 직업을 가진 상대가 좋더라, 통장에는 얼마가 있어야 한다더라 하는 말들이 매우 큰 짐처럼 느껴졌다. 차라리 그 돈으로 잡쌀떡 같은 갱이처럼 평생 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다. 결혼을 생각하면 머리가 아플 것 같아졌다. 그래서 나는 이 책을 재밌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하고 읽게 됐다.

쉽게 생각해 본다면 결혼이 아니더라도 친구를 만나는 것에 빗대어 봤을 때, 내가 완벽해야 상대방의 친구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도 완벽한 친구를 골라서 만나는 것도 아니다. 누구나 장점과 단점은 동시에 존재하기 마련이다. 서로의 단점은 서로의 장점으로 보듬어 주는 것처럼 말이다.

그런 의미에서 결혼은 중대사이지만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일로 생각하니 조금 더 이해하기 수월했다. 그리고 20년 전 작자의 결혼 당시 청첩장이 나와 있는데, "100년을 다시 태어난다 해도 나는 당신의 아내가 될 것입니다"라는 아주 낭만적인 문장임에도 불구하고 작자의 방식대로 민망해하고 부끄러워하는 표현이 솔직하고 재밌어서 확 가까운 사람처럼 느껴졌다.

더 나아가 이 책은 마음 놓고 누군가를 사랑하기 힘든 이 시대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풍경을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가 모두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굳이 결혼이 아니더라도 식물을 키우는 것에 빗대어 본다면 내가 요즘 예지종지

키우는 몬스테라의 물 주기와 일조량이 아스파라거스와는 다르듯이, 다른 것이 틀린 것은 아니다.

"결혼생활을 가급적 평화롭게 유지하기 위해 나는 서로의 '안 맞음'을 받아들이고, 이에 대해 초연해 하며, 그것이 일으킬 갈등의 가능성을 피하려는 훈련을 분능적으로 하게 됐다. 이 점에서 결혼생활은 분명 일종의 인적 수양이라 할 수가 있겠다"라는 부분이 결혼은 사소한 일부터 시작해 여러 일까지 겪다 보면 서로의 내면을 성장시켜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 책은 영화나 소설에 나오는 환상 가득하고 포장한 결혼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아서 좋았다. 평범한 사람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의지하며 풍파를 이겨내는 모습이 평범하지만 평범한 것이 가장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여자와 남자는 결국 동등하게 미숙한 존재인데 어쩌다 우리 사회는 자신의 불평만 내세워 다른 이성을 배척하려 들거나 불평등을 외치며 흡집 내게 왔다 싶기도 했다.

하지만 이중 주처럼 차를 나 대신 아무 말 없이 밀어주던 이웃 아저씨의 감사한 얼굴을 떠올리면 아직 세상은 살만하다 싶기도 하다. 그러나 서로를 존중하는 시선으로 바라봤으면 좋겠다.

이 책은 결혼에 대해 우리 각자의 생각을 이분법적으로 나누어 옳다 그르다를 논하기보다는, 어려운 주제일 수는 있지만 가볍고 편한 마음으로 재밌게 읽을 수 있었던 책이라고 생각했다. 인간 관계가 내 맘 같지 않거나 의문이 드는 부분이 생기면 한 번쯤 이 책을 교과서처럼 펼쳐본다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김예빈 수습기자

이달의 영화 - 파이란



• 영화 제목 : 파이란  
• 영화 감독 : 송해성

영화 파이란은 2001년 4월 28일에 개봉한 송해성 감독의 작품이다. 주연 등 장인물인 최민식(강재), 장백지(파이란)의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두 사람을 향한 슬픈 사랑 이야기를 그린 영화다.

영화의 시작은 담배 연기가 자욱한 인천의 한 오락실에서 잠을 청하는 강재를 바라보면서 시작된다. 그는 삼류인생을 살아가는 건달로 조직의 대장이자 친구인 손병호(용식)의 명령으로 가게를 관리하다 학생들에게 불법 영상물을 유통해 경찰에게 불합한 뒤 조직 내 입지가 더욱더 좁아져 무능력한 자신이 처한 상황을 그려낸다.

동시에 파이란은 중국에서 모든 혈육을 잃고 먼 친척이 있는 대한민국 인천으로 오게 된다. 그러나 친척은 이미 1년 전 캐나다로 떠났고 아무런 연고도 없는 한국에서 혼자서 살아가는 어려움이 중국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말을 듣고선 절망에 빠진다.

파이란은 다시 돌아갈 이유가 없기에

## 피우지 못한 백란

한국에 남아 취업을 하기로 한 채 근처의 인력사무실을 찾아가다. 그녀는 위장 결혼을 통해 영주권 문제를 해결하면 한국에서 일할 수 있다는 상담원의 말을 듣고 한 번도 얼굴을 본 적 없는 강재와 부부의 연을 맺게 된다.

그러던 어느 날 강재는 큰 사건에 휘말리게 된다. 강재와 용식이 함께 자신들의 구역인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상대 조직원의 난동을 보고 참지 못한 용식은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고 감방에 들어갈 수 없었던 용식은 강재에게 자신을 대신해 감방에 들어가 달라고 사정을 한다. 강재는 매일 반복되는 말바닥 삼류인생을 탈피하고자 자신의 꿈인 배 한 척을 받는 조건으로 용식의 죄를 뒤집어 쓰게 된다.

다음 날 아침 용식의 살인죄를 뒤집어 쓴 채 자수를 하고 감방을 가야 하는 강재의 집으로 찾아온 경찰은 그의 부인 파이란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한다. 예전 위장 결혼으로 아내가 되었던 파이란의 시신을 인도하기 위해 자수를 하기 전 강원도로 떠난다. 그는 강원도로 가는 열차에서 기차 안에서 생전 얼굴도 보지 못한 아내의 시신을 인도하러 가는 복잡한 감정을 숨길 수가 없었다.

이와 동시에 영화에서는 파이란의 힘겨운 타국 생활을 그려낸다. 그녀는 위장 결혼으로 힘겹게 한국에서 취업하여 생계를 꾸리고 모진 수모를 겪어가며 삶을 이어간다.

그녀는 고된 노동으로 지친 상태에서 틈틈이 한글을 배우 강재에게 짧은 편지 한 통을 쓴다. 그녀는 자신과 결혼 해주어서 한국에서 일할 수 있게 되었으며 보지는 못했지만 먼 곳에서도 느낄 수 있는 당신의 친절함이 고맙다며 항상 그에게 고마워하고 그리워하는 마음을 편지에 애절하게 녹여내었다.

그러나 비극적이게도 나날이 건강이 나빠지던 파이란은 폐병에 걸려 생을 마감하게 되고 사랑하는 강재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편지는 유서가 되어 그에게 전해진다. 또박또박 써진 유서를 먹먹히 바라보던 강재는 불꽃없는 자신이 누군가에게 고마움이 대상이었던 사실을 처음으로 느끼게 되면서 파이란의 유골을 손에 쥔 채 강원도 어느 바닷가에서 하염없이 그녀를 그리워하며 끝없이 눈물을 흘린다.

며칠이 지난 후 강재는 강원도에서의 일을 끝내고 다시 인천으로 돌아온다. 그는 무언가를 결심한 듯 때론 눈빛으로 용식을 찾아가다. 용식과 마주한 그는 용식에게 감방에 가지 않고 고향으로 내려가겠다고 전한다. 심경의 변화가 생긴 강재를 탐탁지 않게 여겼던 용식은 강재를 압박하기 위해 부하를 시켜 강재를 살해한다. 강재는 숨이 끊기는 순간까지 파이란을 그리워하다 끝내 안타깝게 사망하게 되면서 영화는 끝이 난다.

이 영화는 타국에서 살아가는 파이란의 모진 삶 속에서 자신을 마음속에서나마 지켜준 강재에 대한 따뜻한 마음이 절실히 느껴졌던 영화다. 티 없이 맑은 순수함 그녀가 겪었던 고생을 되돌아보는 강재의 얼굴에서 툭툭 떨어지는 눈물은 이 세상 그 누구도 자신을 반기지 않던 말바닥 인생을 살아왔지만 그런 강재를 누구보다 고마워하고 그리워하던 파이란과의 이루어질 수 없었던 비극적인 사랑을 표현했으며, 극 중에서 파이란이 강재에게 전했던 '감사합니다'라는 한마디는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이라는 말을 심어주는 소중한 한마디가 아닐까?

이민재 수습기자

# 전 세계에 한국을 알리다

## 한국을 알리는 유튜버



▶유튜버 '영국남자' ▶사진출처 - 영국남자 페이스북

한류가 세계를 휩쓸고 있다.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등 한국 유명 가수들과 더불어 먹는 방송을 진행하며 한국의 음식문화도 유튜브에 널리 퍼져 있다.

많은 사람들은 한류 하면 한국 드라마나 한국 드라마를 생각한다. '겨울연가'의 배웅준을 시작으로 20년 이상의 긴 역사를 가진 한류가 시대의 변화에 따라 변한 것처럼, 2021년의 한류도 시대에 맞는 새로운 모습을 선보인다. 세계 최대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유튜브에 한류 열풍이 불고 있다.

유튜브는 2005년 전산량 동영상 공유 첫 마루로 출발해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성장했다. 특히 유튜브와 함께 성장한 10~20대들에게 유튜브는 단순한 전산량 영상 플랫폼이 아니라 기존 영상매체를 대체한다.

유튜브는 일부 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 공통적인 영상을 제공하는 세계적인 플랫폼이다. 이 기능 덕분에 얼마만큼 영상을 올리고 즉시 전 세계로 송출할 수 있다.

현재도 유튜브는 한국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 유튜브에서 만들어지는 수많은 한국의 영상은 유튜브가 제공되는 전 세계 모든 나라에 전파된다.

유튜브 이용자 순위에 한국과 관련된 영상이 다수 있는 것도 비영리 영상으로서 주목할 만한 일이다.

대부분 한국 가수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소통 창구는 유튜브다. 가수 블랙핑크가

유튜브 여왕이라는 별칭을 얻고 전 세계 소녀들이 살고 싶은 사람이 된 배경도 유튜브의 영향이다.

그렇다면 한국을 알리는 유튜버는 누가 있을까? 외국인들에게 한국을 알리는 유튜버들을 살펴보자.

**#안녕하세요! 저희는 언어, 음식, 연애, 음악 등 모든 문화차이를 다루는 코리아너스입니다**

'코리아너스'는 외국인이나 바라보는 한국에 대한 음식이나 문화나 영화나 음악 여러 가지 한국문화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말하고 논평하는 영상을 제작한다.

주로 한국의 문화나 여러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 외국인들이 제작자의 관점으로 느낀 반응을 이야기하거나 한국과 외국인 한 주제에 관해 이야기하는 영상을 올린다. 또한 한국의 이슈나 한국에 대한 주제로 길거리 면접을 진행하기도 한다.

'코리아너스'는 과거 외국인의 관점에서 말하는 고정관념, 해외에서 실제 발생하고 있는 한국에 대한 오해를 영상으로 제작해 소개한다. 국내의 대중을 대상으로 한국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기 위한 가치를 담았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영국남자예요.**

'영국남자'는 대한민국과 영국의 문화에 대한 영상을 다루는 유튜버로 영국인인 조



▶유튜버 '코리아너스'의 영상 미중그림 ▶사진출처 - 유튜브

쉬와 올리가 구성원으로 활동한다. 대한민국에 대한 영상을 올리는 외국인 유튜버 중 구독자 수와 조회수 등에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채널이다.

조기 '영국남자'는 한 달에 한 번 영어 교육 영상을 올렸다. 전문적인 내용보다는 주로 재미와 상식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다. 영국 발음과 미국 발음 차이, 일상 기초 회화, 영국의 시투리 등에 대한 영상이 올라왔다. 또한, 영국인과 대화할 때 대화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좋은 정보로 낯설게 이야기를 하라는 것을 알려주기도 했다. 실제로 영국은 낯설게 시시각각으로 변해서 중점을 수 없으므로 영국인들은 낯설게 말을 입에 달고 살며 태양에 민감하다.

오늘날의 '영국남자'는 영국과 한국의 문화차이를 기반으로 영국 친구들을 한국에 데려왔을 때, 영국에서 한국의 먹거리나 문화 등을 체험했을 때의 반응을 살펴보는 것이 주 영상이다.

코로나19에 걸맞은 '한국에서 영국에게'라는 연속 기획물은 한국에서 재료나 장비 등을 공수해서 영국에서 한국 음식을 재현하는 내용이다.

그간 어느 정도 얼굴이 알려진 기존 출연진보다는 과거에 한두 번 나온 정도가 다거나 아예 처음 등장하는 사람들을 섭외해서 진짜로 한국 음식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에게 소개한다. 한국이 낯선 사람들에게서 신선한 반응이 나와 과거 영국남자의

분위기가 난다며 시청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안녕하세요 CLAB OPEN~!!!**

'CLAB'은 외국인들과 한국인들이 서로의 다른 문화를 체험하거나 외국인의 한국 문화에 대한 반응을 주로 영상으로 다룬다. 비중이 작긴 하지만 다른 주제의 영상도 종종 올라온다. 탈북민의 영상도 가끔 올라온다.

주로 한국문화에 대한 반응과 한국문화 체험기 등에 대한 영상을 제작한다. 'CLAB'이 인기를 끄는 이유는 다른 유튜버들의 한국문화에 대한 외국인 반응 영상에는 주로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만 노출하는데,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이견 좀 아니라는 확실한 의견을 말한 부분도 편집 없이 담아내 가시적이지만 좋아한다는 반응을 얻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을 칭찬하기 위해 타국을 낫추는 발언을 일절 하지 않는 것도 호감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본 불매운동이 한창이던 때에는 '한국 의장대 vs 일본 의장대 비교' 같은 제목의 노골적으로 '일본보다 한국이 낫다'를 유도하는 듯한 영상에서도 '일본도 잘했지만 난 한국이 맘에 든다'라는 식으로 반응하는 모습도 고스란히 담았다.

자료출처 : 유튜브  
네이버 블로그 '외교부'  
주소연 기자  
noeyusohc@gmail.com

### 축제·공연 소식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특별연주회**

- 기간 : 2021. 10. 06. (수) 19 : 30
- 장소 :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 주최 : 부산광역시



**제26회 부산국제영화제**

- 기간 : 2021. 10. 06. (수) ~ 2021. 10. 15. (금)
- 장소 : 영화의전당
- 주최 : (사)부산국제영화제



**한복문화주간**

- 기간 : 2021. 10. 11. (월) ~ 2021. 10. 17. (일)
- 장소 : (사)행사) 스타필드 하남 1층 센트럴아트rium (본행사) 스타필드 코엑스 B2 라이브플라자
- 주최 : 문화체육관광부



**2021 태화강국제설치미술제**

- 기간 : 2021. 10. 14. (목) ~ 2021. 10. 31. (일)
- 장소 : 태화강가정원 칠새공원
- 주최 : 경상일보



**부산시립합창단 스타프로젝트 <레 미제라블>**

- 기간 : 2021. 10. 14. (목)
- 장소 : 부산문화회관 챔버홀
- 주최 : 부산문화회관



**제12회 부산국제춤마켓**

- 기간 : 2021. 10. 15. (금) ~ 2021. 10. 18. (일)
- 장소 : 금정문화회관 금빛누리홀, 은빛샘홀, 극장로비
- 주최 : 금정문화회관, 부산국제춤마켓



**제55회 처음 문화제**

- 기간 : 2021. 10. 28. (목) ~ 2021. 10. 31. (일)
- 장소 : 태화강 남구둔치 일원
- 주최 : 울산광역시

# 한글날의 변화

## 기념일에서 공휴일이 되기까지



▶한글날

▷사진출처-해커스인강

10월의 대표적인 공휴일인 10월 9일은 한글날이다. 세종대왕이 창제한 훈민정음의 반포를 기념하기 위해 제정한 국경일이며, 한글을 보급·연구하는 일을 장려하기 위하여 정한 날이다. 2021년 현재 법정 공휴일이며, 5대 국경일이기 때문에 태극기를 게양해야 한다.

1910년에 '국어', '국문' 대신에 '한나라말'과 '한나라글'이란 말을 만들어 썼으며 그 후 '한나라말'을 줄인 '한말', 우리 겨레의 말글이란 뜻의 '배달말글'이란 용어를 사용하다가 1913년부터 '한글'이란 말이 사용됐다.

1927년 동인지 《한글》이 간행되고 '가가날'이라고 부르던 훈민정음 반포일이 차차 '한글날'로 불리면서, '한글'이 우리 문자

의 이름으로 보편화됐다. 하지만 길거리를 다니면 식당이름이나 상표 등의 이름은 거의 영어로 적혀있거나 우리나라말을 찾아볼 수 없다. 사람들은 한글의 아름다움을 잊고 살아가고 있다. 조금이나마 한글날을 맞이해 한글의 소중함을 알고자 한글날의 변화와 기념일에서 공휴일이 되기까지에 대해 알아보자.

### # 한글날의 변화

훈민정음은 세종대왕 25년 곧 서기 1443년에 완성하여 3년 동안의 시험 기간을 거쳐 세종 28년인 서기 1446년에 세상에 반포되었다. 세종대왕이 주도하여 창의적으로 만든 문자인데 지극히 과학적이고 합리



▶한글날 태극기 게양

▷사진출처-해커스인강

적이어서 세계 문자 역사상 그 짝을 찾을 수가 없다. 한글만큼 우수한 문자는 또 없을 것이다.

이러한 한글의 잠재로 말미암아 우리는 문자가 없어서 남의 글자인 한자를 빌려다가 우리말을 중국말 문법에 맞추어 쓰던 불편을 벗어나고 자유롭게 표현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따라서 오늘날과 같은 문화, 경제, 정치 등 각 분야에 걸친 발전을 이루어 세계 우수한 나라들과 어깨를 겨루게 되었다. 한글날은 이러한 한글의 잠재와 반포를 기념하고 한글의 우수성과 공로를 기리는 날이다.

원래 날짜는 음력이고 현재 사용하는 달력은 양력일 때 흔히 나타나는 문제점인 날짜가 매년 바뀌는 문제는 한글날에도 존

재했는데, 이에 대한 불편함이 제기되자 1931년에 음력 9월 29일의 날짜를 율리우스력으로 환산, 1932년부터는 10월 29일에 행사를 치렀고, 1934년에 그레고리력으로 다시 환산하여 1945년까지 10월 28일에 행사를 치렀다.

1940년 훈민정음 해례본이 발견되고, 여기에 책이 발견된 때가 음력 9월 상순(음력 9월 10일을 그레고리력으로 따지면 10월 9일)으로 기록된 게 확인됐다. 한 가지 알아두면 좋은 사실은 1940년에 훈민정음 원본이 발견되었음에도 원래대로 10월 28일에서 날짜가 바뀌지 않았다는 점인데, 이것은 1937년 중일전쟁이 터진 이후에는 탄압 때문에 한글날 행사를 열기가 쉽지 않았고, 1942년에는 그 유명한 조선어학회

사건 때문에 기념식을 주관할 사람들이 모두 감옥에 잡혀가는 바람에 열리지 못하는 등의 말 못 할 사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1945년 독립이 된 이후에는 10월 9일에 한글날 행사를 진행했으며, 1949년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건'을 처음 제정할 때부터 공휴일로 지정됐다.

한글날은 한글이 만들어진 날이 아니다. 1940년에 훈민정음 해례본을 발견했는데, 여기에 훈민정음을 9월 상순에 책으로 펴냈다고 나와 있다. 1446년 9월 상순의 마지막 날인 음력 9월 10일을 그레고리력으로 계산하면 10월 9일이 된다. 그래서 한글날을 10월 9일로 정한 것이다.

### # 기념일에서 공휴일로

한글 단체들을 중심으로 진행하던 한글날 행사 주최 권한이 1981년부터 정부(문화관광부)로 이관되면서 한글날에 관심을 갖는 듯 했으나 1991년부터 한글날을 국경일 겸 법정 공휴일이 아닌 일반 기념일로 바꿨다. 10월엔 공휴일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공휴일에서도 제외됐다. 이 때문에 기념일 전환 당시인 1991년에는 한글날을 국경일로 재지정하라는 시위가 일어났다.

공휴일이 아니었던 1990년부터 2012년까지 22년간 한글날에 헌 적은 고작 3번 뿐인데 이 당시엔 단순히 일요일이라서 쉬었던 것이다.

이후 한글학회 등 한글 관련 단체들의 각고의 노력 끝에 2005년 12월 8일, 대한민국 국회 본회의에서 '한글날 국경일 지정 법안'이 통과되어(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법률 제7771호)) 2006년부터는 기념일이 아닌 국경일로 바뀌었다.

하지만 국경일로 격상되었어도 다시 공휴일이 되지는 않았다. 2009년엔 한글날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었

으며, 실제로 당시 언론에서도 관련 소식이 계속 나오고 있다가 수그러들었다.

그러다가 2012년 가을에 다시 한글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발의된 후 2012년 12월 28일에 한글날이 다시 공휴일로의 재지정이 확정되었으며, 2013년부터 정식으로 다시 공휴일이 됐다.

2006년과 2007년에는 국경일 중 유일하게 평일이었으며, 2008년부터 2012년까지는 제헌절과 함께 풀 썬인 평일인 국경일이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글날 공휴일 지정을 제안하고 나섰으나 경제부처인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가 경제 단체의 의견 및 생산성 저하 등을 우려하여 반대 관해를 나타내었다. 또 경영자총협회, 전경련, 중소기업중앙회 등 재계 및 경제 단체들도 이런 우려와 걱정 때문에 공휴일 지정을 반대했다. 하지만 한글학회 등이 한글날을 공휴일로 부활시키는 법안을 계속해서 발의해, 공로를 인정받아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병헌 국회의원은 2014년에 한글학회로부터 한글나라 큰별상을 받았다.

일부에서는 한글날을 요일제 공휴일로 바꾸자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한글날은 해례본에도 '9월 상순'으로 적혀있을 뿐 정확한 날짜를 아는 건 아니기 때문에 '바로 그 날짜를 기념해야 한다'라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부분도 있다.

한글날 연휴의 현황은 2025년 10월 3일(금)~10월 9일(목)-추석, 개천절, 한글날이 하나의 연휴를 이루고 있다. 대체 휴일 제도 적용으로 10월 8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된다. 2017년 추석-개천절-한글날 연휴 사례를 고려해 10월 10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한다면 8년 만에 다시 10월 연휴가 탄생한다.

자료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더위키[한글날] 최희미 수습기자

# 독도의 날

## 대한민국 동쪽의 끝, 독도



▶서도 계단에서 바라본 동도

▷사진출처-외교부 독도 자료실



▶독도 캘리그래피

▷사진출처-외교부



▶동도 정상에서 바라본 서도의 실경

▷사진출처-외교부 독도 자료실

독도를 떠올리면 '독도는 우리 땅'의 노래 가사를 많이 떠올릴 것이다. 울릉도 동남쪽 뱃길 따라 200리. 하지만 이제 200리는 시대에 맞게 킬로미터로 바뀌 '87K'로 가사가 수정되었다.

독도는 울릉도에서 87.4km 떨어진 곳에 있는데, 음력에 맞게 대략적인 가사를 개선한 것이다. 이제 다 같이 독도는 우리 땅 가사는 개선된 가사로 불러보자.

### # 천연기념물 독도

독도는 두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동남쪽에 위치한 동도는 유인 등대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해양수산 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높이는 98.6m, 둘레 2.8km, 면적 73,297㎡로 장축은 북북동 방향으로 450m에 걸쳐 경사가 60도로 뻗어 있고, 중앙부는 원형 상태로 해수면까지 꺼진 수직 홀이 특징이다. 서북쪽에 위치한 서도는 높이 168.5m, 둘레 2.6km, 면적 88,639㎡, 장축은 남북 방향으로 약 450m, 동서 방

향으로 약 300m가량 뻗어 있으며 서도의 정상부는 협준한 원추형을 이루고 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라면 독도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영토이자 자산인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섬이다. 물론 우리에게 소중한 영토이며 자산이다.

독도는 울릉도 동남쪽 87.4km 떨어진 곳에 있으며, 행정구역상으로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산 1-37번지로 되어 있으며, 독도는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 천연보호구역'으로 보호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천연기념물은 동물, 식물, 지형, 지질, 광물, 동굴, 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특별한 자연현상으로서 역사적, 경관적 또는 학술 가치가 큰 것 중 중요한 것으로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것을 말한다.

### # 독도의 자연환경

독도는 연중 흐리거나 눈과 비가 많이

내려 비교적 습한 지역이다. 겨울에는 육지에 비해 따뜻하고 여름에도 육지만큼 덥지 않다.

여름에는 비가 많이 오는데, 7월에 가장 많이 내린다. 일 년 중 비가 내리는 날이 150일 정도이며, 연평균 강수량은 1,240mm 정도이다.

독도는 화산섬이므로 식물의 종류가 육지만큼 다양하지 않다. 왜냐하면 독도는 흙이 적어 식물이 뿌리를 내리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런 환경에 잘 견디는 초본류와 목본류 50~60여 종이 살고 있다.

독도는 경제적인 측면과 지형학적인 면에서도 가치가 매우 높으며 독도는 철새 이동 경로의 중간 피난처 및 휴식처로 우리나라 생물의 기원과 분포를 연구할 수 있어 섬 생물지리학적으로 중요하다.

독도 주변의 바다는 명태, 오징어, 상어, 연어 등 다양한 물고기가 많이 잡힌다. 바닷속에도 다시마, 소라, 전복 등 해조류가 다양하게 자생하며 상당량의 지하

자원이 묻혀 있는 곳이다.

### # 독도 입도

독도는 울릉도를 거쳐야 갈 수 있고 독도 관광 구역은 동도 선착장에 한해 관광이 가능하고 관광 목적이 아닌 행사, 집회, 취재, 학술조사, 숙박, 체류 등의 특수목적의 경우 울릉군에 입도 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은 후 가능하다.

선박 운행시간, 요금, 선착장 등은 변동될 수 있으니 각 선사를 통해 미리 확인해야 하고, 독도 입도는 기상 여건, 선박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독도 입도는 1회 470명으로 한정되어 있다. 울릉-독도행 여객선 운항은 보통 3월 15일~11월 15일 전후로 계획된다.

### # 독도의 날 의미, 유래

독도의 날은 1900년 10월 25일 고종황제가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에 독도를 울릉도

의 부속 섬으로 명시한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제정한 날로, 2000년 8월 민간단체인 독도수호대가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정한 것에서 시작했다. 독도를 울릉도의 관할구역으로 명시한 대한제국 칙령 제41호가 제정된 1900년 10월 25일을 기념하는 의미가 있다.

경상북도 울릉군 관할인 독도를 수호하는 운동을 하는 단체인 '독도수호대'는 2004년부터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하기 위한 사업 계획 수립 후 전민인 서명운동을 시작했다으며, 두 차례 관련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또한 전 세계에 잘못 알려진 독도와 동해 정보를 바로잡기 위해 일본인을 위한 일본어 누리집 운영, 자료집 발행과 일본 현지 배포 등을 하고 있다.

2005년 6월 9일 경상북도 의회는 독도의 날 조례안을 가결하여 매년 10월을 '독도의 날'로 정하는 내용의 조례를 통과시켰다. 같은 해 3월 일본 시마네현 의회가 매년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정하는

조례를 제정한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독도의 날 조례에 따라 경상북도는 매년 10월에 관련 행사를 진행한다.

2008년 국회에서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으나 통과되지 않았다. 2010년 한국교총·한국청소년연맹·우리역사교육연구원·독도학회 등이 연합해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선포하고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널리 알리고 강력한 독도 수호 의지를 세계 각국에 드러내기 위해 매년 관련 행사를 진행해오고 있다.

그리고 2012년 10월 28일 국가 해양부는 국가지명위원회를 통해 공식적으로 동도의 봉우리를 우선봉, 서도의 봉우리를 대한봉이라 명명하였고, 바위집 발행과 일본 현지 배포 등을 하고 있다.

자료출처 : 외교부 독도 자료실 네이버 지식백과독도 -한반도에서 가장 오래된 화산 섬 김예빈 수습기자



“3학년” 3학년은 정말 애매한 위치인 것 같다. 새로운 시작의 설렘을 안고 있던 1학년 댄 무언가 제대로 도전해보지도 못한 채 아쉽게 흘러갔다. 2학년은 많은 도움을 받고 어느 정도 정보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아쉽지만 많은 도전과 그 결과를 얻었다. 너무 하고 싶었던 공학에서의 인턴실습. 보통 고학년에만 주어지던 현장실습의 기회를 운이 좋게 얻었는데, 그 경험은 지금 나에게 좋은 경험으로 한구석에 남아있다.

부족한 영어 회화 실력이 승객분들께 민폐가 되지 않을까 했지만, 열심히 하러는 모습 때문이었는지 오히려 승객들이 살갑게 다가가 주는 것 같았다. 사업단에서 주최한 물류 기업조사 대회에서는 마음이 맞는 동기들과 함께 준비하여 일반 물류 기업 탐방을 하기도 했는데 장학금을 지원받고 간 탐방이라 아마 2학년 활동 중 가장 뿌듯했던, 자랑스러웠던 활동 하나를 꼽으라면 이것을 꼽을 수 있을 것 같다. 나를 이것저것 선배들과 함께 준비해보기도 하고 경험 중심의 2학년이 흘러가고 하고 싶은 도전이 남아 1년 동안의 도전 기간으로 나는 휴학했다.

지금이나 아니면 평생 숙제로 남을 것 같은 도전이 끝이 나고 3학년이 되었다. 돌아오니 여러 곳에서 많은 변화가 생겼다.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수업이, 동기들만 있었던 강의환경이, 국제협력관에 있던 편의점의 부재처럼 사소한 것들에서도 그 변화가 보였다. 얼렁뚱땅 어수선한 3학년의 시작도 잠깐. 그 3학년이 이제 3달이 남짓 남았다. 비대면 수업으

## 앞으로 나아가기

류지수 (국제물류·3)

로 인해 노트북 앞에 앉아만 있어도 아까운 나의 시간은 왜 빠르게 흘러가는지, 아침부터 정신없는 지하철에, 롤러코스터처럼 우리 대학교 오르막을 오르며 마을버스에서 내려 강의실로 뛰어 들어갔던 나를 돌아보면, 비대면 수업이라 한편으론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는 말처럼 이미 비대면 수업에 적응해 자주 거만 강의실 위치를 헛잡리고 어색해지는 모습이 신기하기도 하다. 물론 마스크도 쓰지 않고 친구들과 강의를 듣고 학교 주변을 찾다니며 축제를 보던던 예전 추억을 되짚어보면 괜히 아쉬운 감정이 들면서, 지금의 신입생들은 캠퍼스의 재미를 겪지 못했을 것 같아 안타깝기도 하다.

코로나의 행적이 잠깐 뜸해졌을 때면 수업 덕에 학교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다. 휴학하기 전 학교에서의 생활이 적게나마 돌아왔었고 등교하는 동기들과 선배, 후배들과의 교류가 생겼다. 그 교류를 통해 얻을 수 있었던 좋은 경험과 기회, 연구회 활동과 선배부 사학학습공동체 활동이다.

알고 지냈던 선배의 권유로 3차 물류 연구회에 속하게 되었고 공모전에 나갈 기회를 얻게 된 적이 있었는데, 2학년 때 잠깐 참여했던 연구회 활동과는 조금 달랐다. 그 당시에는 영어 단어를 외우며 개개인의 능력향상에 중점을 두는 것이었다면, 내가 원하고 막연히 상상해오던 연구회 활동은 이번 기회가 그 상상과 더 가까웠다. 공모전은 생각보다 어

려워서 아쉽게 입상하지는 못했지만, 공모전 주제였던 해양오염 관련 지식과 공모전 준비에 대한 경험치가 쌓여서 뿌듯했다. 연구회 담당 교수님의 추천으로 선배부 사학학습공동체의 지도를 맡게 되었다. 처음으로 누군가를 지도하고 무언가를 이루게 해준다는 것은 마음처럼 되지 않았다. 그렇지만 학생들은 잘 따라주었고 2학기인 지금 그 구성원들과 함께 한 번 더 새로운 시작을 한다.

하루는 갑자기 교수님이 휴강을 내리셔서 공강 시간이 길어졌는데, 그 덕분에 동기들이랑 임광산을 올라가게 되었다. 그날도 9월이 가기 전이라 날씨도 선선하고 다들 산책 겸 등산객들을 따라 산에 올라갔는데, 가파른 오르막에서는 말없이 걷다가도 무난한 능선을 따라 걷기를 몇 번씩 반복하며 오르다 보면 어느새 정상에 도착해 있었다. 우리는 부끄러운 표정을 내리다보니 수다쟁이가 되었다. 팔각 정자에 앉아 얼음물을 마시며 이리저리 대화하면, 그렇게 뿌듯하고 행복한 순간이 없었다.

그 때의 좋은 기억을 계기로 친구들과 밥을 흘리며 산을 오르다 보니, 등산도 엄청려 부산에 있는 신들을 하나씩 다니는데 재미를 붙이게 되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 자주 가지는 못하지만 산은 나에게 건강한 추억의 장소가 되었다. 코로나가 종식이 된다면 굳이 멀리 가지 않더라도 어떤 산이든 자주 산을 오르며 건강한 추억을 쌓아두고 싶다. 이번 기회에 친구들과 다시 경험할 수 있길 기대해본다.

## 죽비소리

## 모국어를 잠식하는 현대사회

나경호 (방송영상·4)

독자들은 대부분 우리나라 국민일 것이다. 그들에게 질문하고 싶다. 당신들은 한글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는가? 만약 긍정적인 대답을 생각했다면 타인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한 번의 질문을 더 던지고 싶다. 해가 지날수록 취업난은 심해지고 있다. 일자리는 구하기 힘든 반면 기업에서 요구하는, 소위 ‘스펙, 커리어’ 등은 더 많아졌다. 그중에서도 당연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외국어 능력이다. 여러 사람들이 영어(이하 제2외국어), 제3외국어를 공부하기 바쁘다. 목숨을 걸고 공부할 만큼 일상을 포기하고 전념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더욱이 외국어 공부에 열심이다. 필자 또한 그들 중 하나다. 물론 제2외국어, 제3외국어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한글을 제대로 이해하고 숙지한 뒤 외국어 공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누미디어가 급진적으로 발달하고 있다. 따라서 올드미디어들은 상대적으로 사양화되며 이용이 감소하거나 사라지고 있다. 매체 발전의 영향으로 신조어, 줄임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요즘은 우리나라 표준어는 몰라도 나에게 건강한 추억의 장소가 되었다. 코로나가 종식이 된다면 굳이 멀리 가지 않더라도 어떤 산이든 자주 산을 오르며 건강한 추억을 쌓아두고 싶다. 이번 기회에 친구들과 다시 경험할 수 있길 기대해본다.

현재와 과거를 비교했을 때 과거엔 유행어나 신조어를 사용한다고 해도 그것이 무슨 뜻인지 추측이 가능했다. 때문에 일상생활 속 대화에서 불편함을 겪거

나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미디어가 발전할수록 새로운 용어와 줄임말들이 난무하기 시작했다.

현대사회인들은 유행을 따라가기 바빠 점점 순 우리나라 한글의 중요성을 잊는다. 소외받지 않고 살기 위해,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안타깝게도 순 한글보단 유행어 신조어를 알아야 하는 일이 급선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 사람들은 한글의 중요성을 간과한 채 생활한다. 뒷받침할 수 있는 예시는 서로의 일상생활에서 바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독자들은 개인마다의 사적, 공적인 문제로 인해 스마트폰으로 타인과 연락을 주고받는다. 여기서 맞춤법을 틀린다고 나 적절한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을 손쉽게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도 마찬가지로 타인과 연락할 때 10명 중 7, 8명 정도가 단순한 맞춤법조차 틀려가면서 연락을 해 오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 서로 모르고 이를 주고

받은 문제야 될 일이 없었지만 한글을 어느 정도 잘 아는 상대방이 이를 목격한다면 눈살이 찌푸려진다. 그렇다고 해서 바른 맞춤법, 적절한 단어를 타인에게 가르쳐주면 기분 나빠할 것 같아 눈치 보며 바로잡아주는 일도 쉽게 하지 못한다.

서로의 눈살이 찌푸러지지 않기 위해 나 자신이 먼저 한글의 중요성을 깨닫고 공부해야만 한다. 조금만 알아보려 노력한다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글의

맞춤법과 단어는 틀릴 일이 없을 것이다. 더 나아가 우리가 알지 못했던 단어들이 무수히 많다는 것 또한 생각할 수 있어 한글의 중요성을 넘어 흠뻑까지 느낄 수 있다고 확신한다.

필자는 목표로 하고 있는 직장에 취업을 하기 위해 한국어능력시험 공부를 한 경험이 있다. 책을 펼쳐서 30분도 채 되지 않았을 때 이때까지 한국어를 얼마나 들었는지하면서 지내고 있었는데 대한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다. 또한 이때까지 내가 아는 단어들은 세상에 나와 있는 단어에 비하면 방산의 일각이라는 것을 알았다.

우리나라 사람이 모국어를 공부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이처럼 당연한 일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음의 여유가 없어 보인다. 현대 용어에 익숙해지지 못해 이제는 본래 속직하고 있어야 하는 한글을 터부시하는 사람들도 있다.

한글은 우리나라의 얼굴이자 자존심이라고 생각한다.

필자는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한글을 잘 알고 이해하여 적절하게 잘 쓸 수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자주 한다. 모국어를 뒤로한 채 살아가기 급급하여 외국어만 바라보아야 하는 현실이 너무나도 안타깝다. 곧 한글날이 다가온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일 년에 한번 밖에 없는 이날 만큼이라도 외국어들은 잠시 잊어두고 내가 모국어를 잘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고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 이달의 명언

그대의 자식은 아홉달다.

—세종대왕

언어록 읽으면 민족의 바탕을 잃어버리는 것이니, 영원히 독립을 이룩할 수 없다.

—주시경

한가하면 옛사람의 책을 보라

—허균

## 네 컷 만화

### 한글날



한글의 위대함을 느낀 그들 이었다...



2021년 10월도 훌쩍 다가왔습니다. 한글날을 기념하며 만화와 만평을 만들었습니다. 한글의 의미를 기억하고 건 강한 한 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사설

‘뽕뽕이’, ‘커여워’ 누리망 동아리나 사회관계망을 하다 보면 이 단어가 자주 보인다. 사람들은 ‘뽕뽕이(강아지)’를 ‘뽕뽕이’로, ‘커여워’를 ‘커여워’로 바꿔 쓰기 때문이다. 모양이 비슷하다는 점에 착안해 ‘뽕’ 대신 ‘뽕’을, ‘커’ 대신 ‘커’를 쓴 것이다. 사설의 제목 또한 아민정음을 이용했다. ‘과피’에서 ‘과’ 대신 ‘과’, ‘과’ 대신 ‘과’를 썼다.

최근 언론이나 방송에서 아민정음에 대한 표현들이 많이 소개되고, 아민정음을 이용한 라면인 ‘깡도네비빔(깡도네비빔면)’까지 출시됐다.

아민정음은 한글의 자음, 모음 등을 비슷한 것으로 바꾸어 단어를 다르게 표현하는 누리망 유행의 한 종류로 비슷한 모양으로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글자를 회전시키거나 압축하는 경우도 있다. 심지어 아민정음은 한글만 변형시키는 것이 아니다. ‘21세기’는 ‘리세기’로 표현하기도 한다. 사람 이름 또한 아민정음

으로 표현할 수 있다. 아민정음의 어원은 누리망 동아리의 누리집인 ‘디시인사이드 국내구글러리’의 ‘야’와 ‘훈민정음’을 합친 말인데, 비슷한 글자를 바꿔 적는 행위가 처음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처음에는 ‘누리망 동아리’의 누리집 안에서 은어로 사용되다가 이용자가 늘면서 다른 누리망 동아리로 퍼져나간 것으로 파악된다. 이 중 일부 단어는 사회관계망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아민정음의 일부 단어는 통·번역기도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 번역기에 ‘머통령’을 입력하면 바로 ‘대통령’을 뜻하는 ‘President’로 번역된다. 이는 자동 통·번역을 지원하는 업체들이 누리망에서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대한 양의 단어를 통·번역에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사람들이 아민정음으로 만든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영국과 미국에서도 알파벳을 비슷한

## 야민정음, 한글 과피(?)인가?

모양의 기호로 바꾸는 식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아민정음은 줄임말이나 초성으로 표현하는 등의 기준에 있던 신조어와는 사뭇 다르다.

이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제각기 다르지만, 단순히 비슷하다는 이유로 글자 모양만 변형시켰다는 것이기 때문에 한글을 과피한다는 비판도 받는다.

아민정음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을 가진 사람들은 흔히 ‘무뎠게 계산 세종대왕님이 노하시겠다.’라고 한다. 누리망 게시판에는 ‘이해하기 어렵게 변형시킨 단어가 어떻게 창조냐’라며 한글을 과피하지 말아 달라는 글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세종대왕님은 정말 신조어를 사용하고 있는 현대의 백성들에게 분노하십니까?

과거 <비정상회담>이라는 방송에서 작가 조승연은 세종대왕이 바라보는 신조어에 대해 “오히려 흐뭇해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

든 이유는 백성들이 일반적으로 쓰는 말을 글자로 적지 못해서였다. 한글이 반포된 지 5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한글로 표기할 수 있다. 이것을 세종대왕님이 보신다면 내가 글자 하나하나 잘 만들었다’라고 웃으시지 않겠냐’라며 한글의 위대함을 유언성에 있다고 했다.

서울대 국문과 박진호 교수는 아민정음이 본질적으로 수수께끼와 비슷하다고 봤다. 누구나 금방 알아차릴 만큼 원래 한글 표기와 비슷하지도,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만큼 완전히 다르지도 않은 아민정음이 사람들을 궁금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박진호 교수는 ‘과거의 문화유산’을 과피하고 비틀고 재조 합하면서 새로운 문화적 산물이 탄생한다’라면서 ‘한글이라고 해서 변형·과피되지 않고 영원히 보존되려는 법은 없다’라고 했다.

누리꾼들은 아민정음이라는 언어로 의사소통을 하면서 자신을 기성세대와 차별화하고, 그들만의 동질성을 나타낸다.

누구나 맞춤형 휴대전화로 누리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의사소통하고 있다.

사람들은 단어를 구애받지 않고 모양이 비슷하면 다양하게 바꿔 적는다.

아민정음의 모든 표현이 문법적이거나 권장할 만한 것은 아니지만, 의사소통의 원활을 측면에서 뒤로한 채 살아가기 급급하여 외국어만 바라보아야 하는 현실이 너무나도 안타깝다. 곧 한글날이 다가온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일 년에 한번 밖에 없는 이날 만큼이라도 외국어들은 잠시 잊어두고 내가 모국어를 잘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고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우리말로 언어유희를 즐긴다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 오래전부터 사용한 우리말과 이후에 정제된 문자가 함께 어우러져 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쓰고 있으며, 세종대왕님은 더욱 흐뭇해하시지 않을까?

## 목회칼럼



김대영 목회

인간에게 말과 글은 살아가는 데 필수 요소이다. 말이 있으므로 의사를 표현하며 서로 소통할 수 있다. 하지만 말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다. 때문에 글이 필요하다. 글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기 때문이다.

우리는 매해 10월 9일 한글날을 지키고 있다. 한글을 생각해 본다. ‘나랏말싸미 듕귁에 달아...’ 어릴 적 국어 교과서에 실린 그 글귀는 우리에게 한글의 목적을 선명하게 해준다.

세계에는 아직도 자신의 언어는 있으나 그것을 표현하는 글이 없어 다른 나라의 글을 차용하여 쓰는 경우가 더러

## 한글과 기독교

있다. 우리가 과거 우리글이 없었던 시절에는 남의 문자를 빌려와 기록하곤 했다.

한글이라는 이름도 언문, 반절, 가가 글 등으로 불리던 훈민정음을 1910년대에 주시경 선생을 중심으로 한 국어 연구자들이 으뜸가는 글, 하나밖에 없는 글이라는 뜻으로 지어쓰게 된 것이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미 조선시대의 지배계급은 한자를 잘 익히고 부러울 줄 알아야 했기에 한글은 양반들에게 천대를 받았다. 자연스레 태생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없었던 계층들—서민의 글로 자리매김하기 시작하였다.

한글을 만든 분은 세종대왕이지만 한글을 알고 키워준 이는 기독교가 상당한 역할을 한 것이다. 1882년 존 로스 선교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신앙성경을 한 글로 번역하고 문법책을 만들었다. 이로부터 한글은 권위 있는 문자로 기독교인에게 인식되었다. 이후 1910년대에 한글의 문법체계를 주시경 선생 등이 정리하면서 한글이란 명칭이 확정되었고, 1937년에는 지리산 노고단 선교사 수양관에 모인 선교사들의 논의를 통해 구약성경의 한글 번역본이 결정되었다.

성경의 번역 과정에서 한글의 단어와 문법 등이 정리되었던 것이기에 한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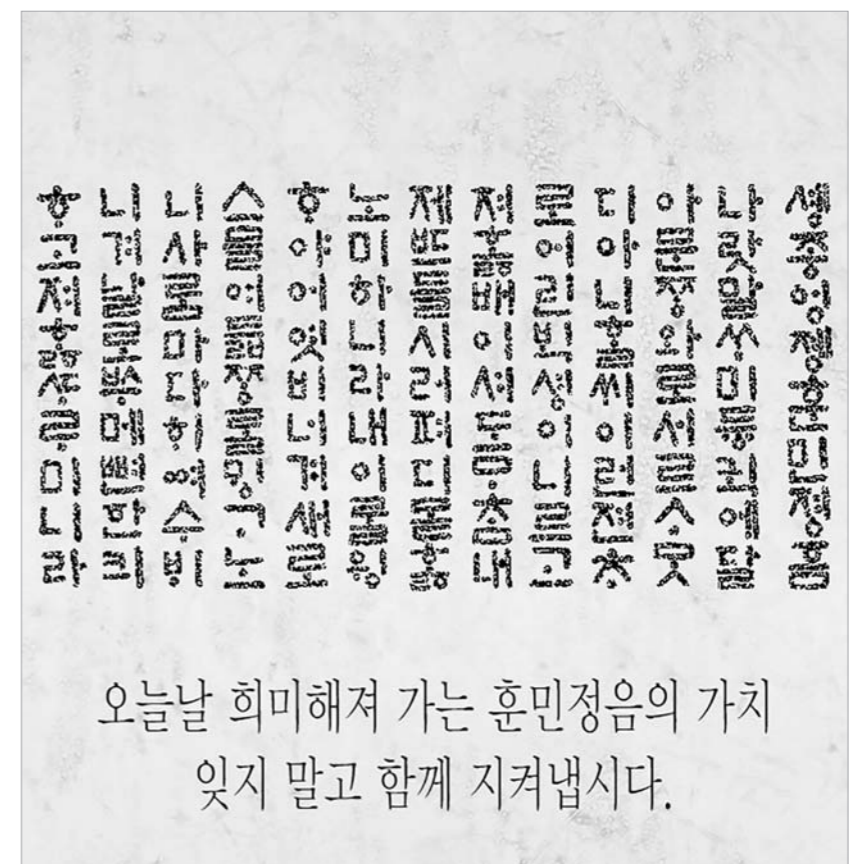
의 역사와 성경 번역의 역사는 떼어놓을 수 없다. 최초의 한글 기독교 성서는 존 로스와 존 매킨 타이어, 한국인 이응환 백홍준 김진기 서상륜 등이 번역에 참여하여 1882년 3월 중국에서 간행된 ‘예수 성교 누기복음전서’다.

고대 히브리인들은 나라를 잃고 떠돌이 생활을 하던 중에도 히브리어로 기록된 성경이 있었기에 그들의 신앙과 문화를 지킬 수 있었다. 우리나라는 한문 성경이 한글로 번역되면서 개화를 맞이하였다.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고 한다. 그 말에 비추보면 성경은 우리 인생을 더욱더 선명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책 읽기에 참 좋은 계절이 왔다. 코로나로 인해 만남의 장이 제한되는 이때를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한번 일독해 보는 것도 좋은 일일 것이다. 우리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보라 내게 새 일을 행하리라는 말씀으로 2021년도 를 시작하였다. 이제 결실의 계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듯 말이 글이 되고 글이 삶이 되어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는 우리 동서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시편 119장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이다.

## 동서만평

글·그림 정희진



오늘날 희미해져 가는 훈민정음의 가치 잊지 말고 함께 지켜냅시다.

■ 학생 인터뷰 - 누비누비 서포터즈

# 부산관광공사 '안심 관광 나눔 캠페인'

안심 관광지에 대해 아시나요?



▶안심 관광지 - 송도유공구루다리



▶사진출처 - 글로벌경제신문 ▶'안심 관광 나눔 캠페인' 누비누비 서포터즈 ▶사진출처 - 부산일보

코로나19로 많은 대외활동에 제약이 생겼다. 관광객도 줄어들면서 관광지에 대한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거리 두기가 가능한 안심 관광지가 생겨나고 있다. 코로나19로 제약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안심 관광지를 홍보하는 참가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동서대 신문사가 인터뷰를 진행해 보았다.

**질문.** 안녕하세요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답변1.**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 대학 관광경영학전공 19학번 양태연이라고 합니다.

**답변2.** 안녕하세요 우리 대학 관광경영학전공에 재학중인 19학번 여의정이라고 합니다.

**질문.** 캠페인에 참여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답변1.** 현재 우리 대학-한국관광공사-부산교통공사-부산관광공사 4개 기관이 협업하는 관광 서포터즈인 누비누비 6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안심 관광지 홍보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답변2.** 저는 우리 대학 관광학부의 관광서포터즈 연구회 누비누비 6기 활동 중에 있습니다. 부산관광공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안심 관광지 홍보 캠페인이 누비누비와 연계되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저희에게 있었던 덕분에 캠페인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질문.** 안심 관광지란 무엇인가요?

**답변1.** 안심 관광지는 여행전문가들이 선정한 거리 두기가 가능한 여행지입니다. 안심하고 여행할 수 있는 힐링여행지입니다. 가장 안데르센 동화동산, 해운대 송정 해양레저 특구, 오륙도 스카이라이프 등 총 10곳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관광분야의 산업이 위축되고 있어 이를 보완하고 관광객들이 좀 더

안심하고 여행할 수 있도록 선정된 것입니다.

**질문.** 안심 관광 나눔 캠페인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셨나요?

**답변1.** 저는 안심 관광지로 지정된 곳 중 영도 '절영해안산책로'라는 곳을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관광지에 방문하신 관광객들에게 안심 관광 키트를 나누어 드리고 안심 관광지에 대해 설명해드렸습니다. 그 외에도 안심 관광지 방역실태 점검표를 마련하여 모니터링을 진행했습니다.

**답변2.** 부산관광공사에서 지정한 안심 관광지 10곳이 있습니다. 그중 영도에 위치한 '절영해안산책로'라는 곳에 방문하여 손소독제를 비롯한 안심 관광 키트를 나눠드렸습니다. 마스크는 잘 쓰고 계신지, 코로나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지와 관련하여 약 50개 이상의 체크리스트를 확인했습니다.

**질문.** 여러 곳을 다니면서 코로나19로 제약이 컸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누비누비나 안심 관광지 캠페인 활동을 하면서 다른 아쉬웠던 점은 없었나요?

**답변1.** 미리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고 방문해도 코로나19 때문에 운영시간이 바뀌거나, 하지 않는 경우도 빈번했습니다. 미리 사전에 예약을 하고 방문해야 하거나 거리 두기 때문에 입장이 불가능 한 곳도 많았습니다. 또한 갑자기 운영을 중단하는 곳도 많아 코스를 변경하거나 다시 재구성해야 하는 점이 많이 아쉬웠습니다.

**답변2.** 코로나19로 방역 단계가 오르면서 그에 따라 시간적인 제약이 더 심해졌는데 그 시간 동안 관광지를 모두 살펴보는 것이 좀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시간대별로 입장이나 관람을 할 수 있고 그 시간이 지나면 퇴장을 해야 하는데 천천히 즐기고 싶었지만 시간에 쫓긴다는 느낌으로 관람을 하여 이 부분이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질문.** 아쉬웠던 점을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답변1.** 아쉬웠던 점을 어떻게 극복하셨나

**답변1.** 역시 함께 활동을 진행했던 팀원들이 있어서 극복이 가능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어떠한 문제에 직면해도 함께 의논하고 해결법을 강구하며 극복해나갔습니다.

**답변2.** 혼자서 하는 활동이 아닌 팀원들과 같이 하는 활동이어서 부담을 할 수 있었습니다. 협동을 통해 효율적인 일처리가 가능했고 이런 덕분에 문제를 쉽게 해결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안심 관광 나눔캠페인을 통해 성장했던 부분이 있었나요?

**답변1.** 캠페인을 통해서 안심 관광지로 지정된 곳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고 코로나19를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코로나 방역수칙 등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춰 어떤 새로운 방법으로 극복하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답변2.** 관광도시 부산의 코로나 시대에 적합한, 안심할 수 있는 관광지를 추천해드리는 캠페인인 만큼 많은 생각과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비대면과 위생, 그리고 부산의 정체성을 한곳에 담아낼 수 있는 새로운 관점을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질문.** 마지막으로 안심 관광지 및 캠페인에 관심이 있는 분들께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1.** 안심 관광지는 코로나 시대에 안심하고 관광할 수 있는 관광지입니다. 여러 분들이 더욱 안심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꼼꼼하게 체크했으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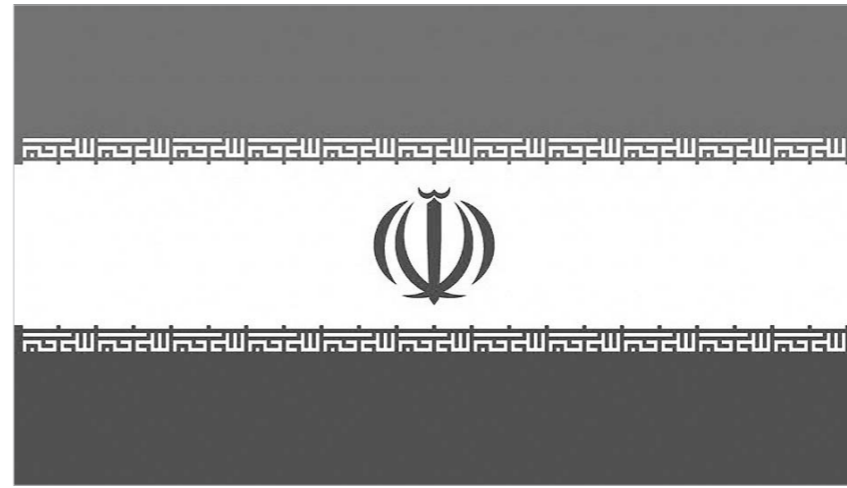
**답변2.** 코로나 시대의 관광도시 부산의 모습이 궁금한 분들께 이곳에 가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코로나가 걱정되지만 여행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안심 관광지 10곳을 방문해 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코로나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마스크를 필수로 착용하면 안심하고 관광지를 즐길 수 있습니다!

임상희 수습기자

■ 우리 대학 외국어교육원-바하래 투시칸

# 한글날 맞이 유학생들이 바라본 한글

외국인이 생각하는 한글이란?



▶이란 국기



▶바하래 투시칸 학생

2021년 10월 9일 제575돌을 맞이한 한글날을 기념하여 외국인 유학생들이 머나먼 한국에 유학을 와서 한글을 처음 접하고 공부하면서 느꼈던 이야기와 그들이 한글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 그리고 한글이 담고 있는 특징들을 인터뷰를 통해 알아보고자 한글날 특집으로 외국인 유학생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질문.** 안녕하세요. 인터뷰에 앞서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저는 이란에서 온 21살 유학생, 바하래 투시칸 이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 대학에서 한국어 연수를 받고 있습니다.

**질문.** 한국어 어떤 계기로 유학을 오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저는 어릴 때부터 한국과 한국의 문화에 대해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컴퓨터 공학을 전공으로 선택하게 되었고, 한국의 대학교에 다니는 것을 목표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2021년 한국 정부 초청 장학생에 합격하게 되어 유학을 오게 되는 소중한 기회를 잡게 되었습니다.

**질문.** 유학을 오기 전 한글을 언제 처음 접하셨나요?

**답변.** 제가 처음으로 한글을 접한 것은 초등학교 5학년 때였습니다. '커피 프렌즈 1호점'이라는 한국 영상을 보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한국 문화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취미로 한글과 한국어 기본 문장들을 독학해왔습니다. 그리고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이란-테헤란 세종학당에서 한국어 수업을 무료로 받을 기회를 얻었습니다. 세종학당 덕분에 한국어 초급과 중급 수업을 받으면서 한국 문화에 대해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질문.** 처음 한글을 접했을 이미지가 어땠나요?

**답변.** 처음 한글을 접했을 때 무척 신기하고 새로웠습니다. 한류에 관한 관심을 바탕으로 한글을 접하게 되어서 그런지 어렵다기보다는 흥미롭고 재미있게 느껴졌습니다.

**질문.** 한국어 공부가 쉽지 않았을 텐데 이와 관련된 에피소드가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답변.** 처음 존댓말을 배울 때 조금 헷갈렸습니다. 한국에서 반말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배웠기 때문에 한국인 친구에게 혹시라도 실수할까 봐 계속 공손하게 존댓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러자 친구가 이제는 반말해도 된다고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질문.** 한글을 사용하면서 어려웠던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답변.** 저에게는 한국어 모음의 발음이 어려웠습니다. 특히 'ㅡ' 발음과 'ㅑ' 발음은 제 모국어에는 없는 발음입니다. 한국어 대화를 처음 시작했을 때, 'ㅡ' 모음을 'ㅣ'로 발음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고, 그때마다 한국인들은 제 말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오해하기도 했습니다.

**질문.** 한글에 대해 불편하거나 아쉬웠던 부분이 있나요?

**답변.** 한글에 대해 크게 불편한 점은 없지만 아쉬웠던 점이라고 하면 제가 한글을 독학으로 시작한 것 같습니다. 한글을 공부하기 위해 수집했던 자료들에 크고 작은 오류가 있었고, 이로 인해 기분을 잘 못 배우게 되었습니다. 처음 배웠던 지식을 다시 교정하여 배우는 것은 힘든 일이었고 필요 없이 많은 시간을 쏟게 되었습니다. 어떤 문자는 처음 배울 때는 믿을 만한 자료를 바탕으로 배우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질문.** 한글에 대해 인상 깊었던 점이 있나요?

**답변.** 한글을 배우면서 한글의 역사도 알게 되었는데, 한글이 세종대왕 단 한

사람의 힘으로 창제된 문자라는 것이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질문.** 본인이 생각하는 한글의 매력은 무엇인가요?

**답변.** 제 생각에 한글의 매력은 창제 원리가 소리에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한글을 통해 한국 문화와 역사를 더 접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이 한글의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한국어를 공부하면서 좋아하게 된 한글 문장이나 단어가 있나요?

**답변.** 한국어 어학당에 와서 숙달에 대해서 처음으로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개전에서 용 나다'라는 말을 가장 좋아합니다. 아직 가야 할 길이 멀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에 입학하게 된 저의 모습을 담은 숙달 같았습니다.

**질문.** 다른 유학생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한글 공부 팁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답변.** 한글을 배우기 시작할 때 꼭 올바른 공식적인 자료들을 선택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가능하면 한국어를 한국 와서 한국어 연수를 통해 배우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훨씬 올바르게 언어를 배우면서 한국 문화와 한국 생활 양식을 접하게 되고, 일상생활 속에서 연습할 기회가 많이 생깁니다. 또한, 언어를 배울 때 그 나라의 역사, 문화, 그리고 생활 양식을 이해하고 언어를 배운다면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질문.** 마지막으로 한국어 공부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나요?

**답변.** 저는 봉사활동으로 외국인 학생들에게 한국어 수업을 하고 싶습니다. 한국어 학원에 다니기 어렵거나, 여학생들을 받을 수 없는 환경에 처해 있는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 언어 실력이 더 늘게 되면 통/번역 일도 하고 싶습니다.

이민재 수습기자

# 성경 속 인물 - 기드온

#하나님께 부름 받은 자



▶기드온을 찾아온 천사

▶사진 출처 - 지식백과

사사 시대의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 생활이 안정되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가나안의 우상들을 따랐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에게 벌을 내리셨고 그때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울며 간구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 그들을 구해주시며 여러 차례 반복하셨다. 기드온은 그런 사사 중 한 명이였다.

기드온은 '별목하는 사람'이란 뜻으로, 맛나세 지파 아비 예셀 사람 요나스의 아들로서 그리 심 산에서 그리 멀지 않은 오브라에 살았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 동쪽에 거주하는 미디안 때문에 7년 동안 고통을 받고 있었다. 농작물을 심어 놓으면 미디안이 쳐들어와 토지소산을 없애고 가축까지 멸하기 일쑤여서 이스라엘은 공멸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다. 이런 고통 중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주셨다. 자신은

약한 자인데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하겠나고 반문하며 회피하려던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셨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니 내가 미디안 사람을 치게 할 사람과 처치 하리라"(사 6:16).

기드온은 이스라엘의 다섯 번째 사사로 40년을 사역했다. 그는 약탈자 미디안 사람들의 눈을 피해 밭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다가 하나님의 사사로 부름받았다. 그는 하나님의 사자에게 자신의 소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보여달라 하였고 이런 사실은 반석 위에 올려놓은 희생제물이 초자연적인 불로 살라지는 것으로 증명되었다. 이에 기드온은 단을 쌓고 '여호와 살롬'이라 불렀다. 그리고 그 밤에 몇몇 친구의 도움으로 바알의 제단을 뒤엎고 신성히 여겨지던 아세라 상을 찍어 버렸다. 이 사건을 계기로 기드온은 여룹바알, 곧 '바알과 더불어 논쟁하는 자'란 별명을 얻게 되었다. 후에 이 이름은 '우상과 논쟁하는 자'란 뜻의 '여룹배셋'으로 바뀌어 불리게 되었다.

전능하신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기드온의 약점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기드온을 통해 하나님이 직접 일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기드온이 잘 순종하는가 아닌가가 중요할 뿐이다. 이는 모든 시대 주님의 일꾼들이 기억해야 할 공식이다. 주님의 일을 할 때 자신의 부족함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지 아닌지 그 여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소명을 받은 기드온은 미디안과 전쟁을 위해 군사를 모집했는데, 많은 무리가 모여들었다. 기드온은 승리를 확증하는 표적을 요구했고, 하나님께서는 이슬이 양털에만 내리고 온 땅에는 내리지 않는 표적과 반대로 온 땅에만 내리고 양털에 내리지 않는 두 가지 표적을 보여 주셨다(사 6:36-40). 이에 힘을 얻은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3만 2천 명의 병사 중 물을 손으로 떠서 활아먹는 용사 300명 만을 선발하였다(사 7:1-8). 또한 하나님께서는 적진에서 한 미디안 군사가 다른 동료 군사에게 꿈 이야기하는 것을 엿듣게 함으로써 기드온에게 승리에 대한 확신과 용기를 주었다(사 7:9-14). 마침내 기드온은 미디안을 쳐서 미디안 두 왕

세바와 살나를 생포하는 등 대승을 거두었고, 이스라엘 지경을 요단 강까지 확장하였다(사 7:22-23; 8:1-21). 기드온의 확확한 공적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를 왕으로 추대하려 했지만, 이를 거절하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여생을 보냈다. "당신들을 다스릴 이는 나도 내 아들도 아니고 하나님뿐이니라"(사 9:1-6).

이에 백성이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할 때 거절한 것까지는 좋았지만, 전쟁에서 탈취한 귀고리로 에봇을 만들어 오브라에 둔 것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이 되었고, 기드온과 그 집안의 율무가 되었다(사 8:24-27). 기드온은 아내를 많이 두어 기병의 아들들을 얻었는데, 그중 하나가 세겜의 첩이 낳은 아비멜렉이다. 기드온이 죽은 후 이스라엘에서는 다시 우상 숭배가 시작되었다(사 8:32-35). 아비멜렉은 계락을 써서 요단을 제외한 70명의 아들들을 모두 살해하는 등 이스라엘은 다시 혼란으로 빠져들었다.

자료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기드온], 네이버 블로그-성명의 말씀사 임상희 수습기자

# 참여하면 유익한 '대외활동·공모전' 소개

**2021 영상공모전**  
2021. 9. 15(수) ~ 10. 14(목)

대한민국 혁신박람회

영상을 통해 아이디어를 표현하고, 창의력을 발휘하여 최고의 영상을 만들어 보세요!

대상: 2021년 9월 15일부터 10월 14일까지 접수된 영상 중에서 심사위원의 선정에 따라 선정됩니다.

대상: 2021년 9월 15일부터 10월 14일까지 접수된 영상 중에서 심사위원의 선정에 따라 선정됩니다.

대상: 2021년 9월 15일부터 10월 14일까지 접수된 영상 중에서 심사위원의 선정에 따라 선정됩니다.

**2021 제3회 장애인식개선 교육 콘텐츠 공모전**  
'공감통틀 60초'

공감통틀 60초, 무엇이 통틀을 통틀 수 있는 콘텐츠로 소통하기를 위한 콘텐츠 공모전!

대상: 2021. 09. 01(수) ~ 10. 15(금)

대상: 2021. 09. 01(수) ~ 10. 15(금)

대상: 2021. 09. 01(수) ~ 10. 15(금)

**2021 Korea-ADB Ventures Innovation Challenge**

2021 Korea-ADB Ventures Innovation Challenge: ADB와 공동 주최로 진행되는 2021년 10월 15일(금)부터 11월 25일(목)까지 진행되는 공모전입니다.

대상: 2021년 10월 15일부터 11월 25일까지 접수된 아이디어 중에서 심사위원의 선정에 따라 선정됩니다.

대상: 2021년 10월 15일부터 11월 25일까지 접수된 아이디어 중에서 심사위원의 선정에 따라 선정됩니다.

**제39회 마로니에 여성 백일장**  
백일장: 2021. 10. 15(금) | 수상자 발표: 2021. 11. 25(목)

대상: 2021년 10월 15일부터 11월 25일까지 접수된 시 중에서 심사위원의 선정에 따라 선정됩니다.

대상: 2021년 10월 15일부터 11월 25일까지 접수된 시 중에서 심사위원의 선정에 따라 선정됩니다.

**모인 해외송금 학생활인 서비스 네이밍 공모전**

대상: 2021년 9월 17일부터 10월 17일까지 접수된 네이밍 중에서 심사위원의 선정에 따라 선정됩니다.

대상: 2021년 9월 17일부터 10월 17일까지 접수된 네이밍 중에서 심사위원의 선정에 따라 선정됩니다.

**제1회 단양군 캐릭터 이모티콘 공모전**

대상: 2021년 9월 17일부터 10월 17일까지 접수된 이모티콘 중에서 심사위원의 선정에 따라 선정됩니다.

대상: 2021년 9월 17일부터 10월 17일까지 접수된 이모티콘 중에서 심사위원의 선정에 따라 선정됩니다.

■ 행정안전부 2021 대한민국 혁신박람회 영상 공모전  
• 접수기간: ~2021. 10. 14(목)  
• 응모대상: 제한없음  
• 공모분야: 영상/UCC/사진

■ 2021 제3회 장애인식개선교육 콘텐츠 공모전  
• 접수기간: ~2021. 10. 15(금)  
• 응모대상: 장애인식개선에 관심있는 누구나  
• 공모분야: 영상/UCC/사진

■ 2021 Korea-ADB Ventures Innovation Challenge 창업 공모전  
• 접수기간: ~2021. 10. 15(금)  
• 응모대상: 관련 주제의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창업자  
• 공모분야: 기획/아이디어

■ 2021년 제39회 마로니에 여성 백일장  
• 접수기간: ~2021. 10. 15(금)  
• 응모대상: 미등단 여성이러 누구나  
• 공모분야: 문학/글/시나리오

■ 모인 해외송금 학생활인 서비스 네이밍 공모전  
• 접수기간: ~2021. 10. 17(일)  
• 응모대상: 제한없음  
• 공모분야: 네이밍/슬로건

■ 제1회 단양군 캐릭터 이모티콘 공모전  
• 접수기간: ~2021. 10. 18(월)  
• 응모대상: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  
• 공모분야: 디자인/캐릭터/웹툰

**제3회 온라인청년센터 영상공모전**  
온형세과 함께라면

대상: 2021년 9월 15일부터 10월 14일까지 접수된 영상 중에서 심사위원의 선정에 따라 선정됩니다.

대상: 2021년 9월 15일부터 10월 14일까지 접수된 영상 중에서 심사위원의 선정에 따라 선정됩니다.

**2021 청년정책 아이디어 PT 경연대회**

대상: 2021년 10월 15일부터 10월 19일까지 접수된 아이디어 중에서 심사위원의 선정에 따라 선정됩니다.

대상: 2021년 10월 15일부터 10월 19일까지 접수된 아이디어 중에서 심사위원의 선정에 따라 선정됩니다.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전력산업 아이디어 발굴 경진대회 개최**

대상: 2021년 10월 22일부터 10월 22일까지 접수된 아이디어 중에서 심사위원의 선정에 따라 선정됩니다.

대상: 2021년 10월 22일부터 10월 22일까지 접수된 아이디어 중에서 심사위원의 선정에 따라 선정됩니다.

**2021 매일신문 광고대상**

대상: 2021년 10월 25일부터 10월 25일까지 접수된 광고 중에서 심사위원의 선정에 따라 선정됩니다.

대상: 2021년 10월 25일부터 10월 25일까지 접수된 광고 중에서 심사위원의 선정에 따라 선정됩니다.

**2021년도 블록체인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대상: 2021년 9월 13일부터 10월 28일까지 접수된 아이디어 중에서 심사위원의 선정에 따라 선정됩니다.

대상: 2021년 9월 13일부터 10월 28일까지 접수된 아이디어 중에서 심사위원의 선정에 따라 선정됩니다.

**1879 골프 모자 디자인 공모전**

대상: 2021년 9월 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접수된 디자인 중에서 심사위원의 선정에 따라 선정됩니다.

대상: 2021년 9월 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접수된 디자인 중에서 심사위원의 선정에 따라 선정됩니다.

■ 제3회 온라인청년센터 영상 공모전  
• 접수기간: ~2021. 10. 18(월)  
• 응모대상: 일반인, 대학생  
• 공모분야: 영상/UCC/사진

■ 2021 청년정책 아이디어 PT 경연대회  
• 접수기간: ~2021. 10. 19(화)  
• 응모대상: 만18~34세 청년  
• 공모분야: 기획/아이디어

■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전력산업 아이디어 발굴 경진대회  
• 접수기간: ~2021. 10. 22(금)  
• 응모대상: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 공모분야: 과학/공학

■ 제18회 매일신문 광고대상 공모전  
• 접수기간: ~2021. 10. 25(월)  
• 응모대상: 제한없음  
• 공모분야: 광고/마케팅

■ 2021 블록체인 아이디어 공모전  
• 접수기간: ~2021. 10. 28(목)  
• 응모대상: 블록체인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 공모분야: 기획/아이디어

■ 1879 골프 모자 디자인 공모전  
• 접수기간: ~2021. 10. 31(일)  
• 응모대상: 디자인에 관심 있는 일반인 및 학생  
• 공모분야: 광고/마케팅

**외국어랑 오탈자 찾고 상품 받아가자!**

175호 신문은 한글날을 맞이하여 외국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한글날 특집 '외국어 및 오탈자 찾기'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몇 면에 어떤 외국어와 오탈자가 있는지 찾아 응모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 단, 기사 이메일, 6면 죽비와 엄광산, 만평, 4컷 만화, 고유명사는 제외됩니다. (고유 명사와 같은 대체 불가능한 언어 및 기사 제목, 기사 내용 안의 제목의 경우 제외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곳에 작성해 주세요!

학번, 학과, 이름 연락처를 적어 아래의 번호로 보내거나 산학협력과 대강당 입구에 있는 신문사 건의함에 넣어주시면 응모가 됩니다!  
※ 편집국장: 010-6771-8237  
※ 10월 29일까지 투표에 참여해주시는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 당첨자는 10월 30일에 개별 통보합니다. 많은 응모 부탁드립니다.

• 학 과 : \_\_\_\_\_  
• 학 년 : \_\_\_\_\_  
• 이 름 : \_\_\_\_\_  
• 연 락 처 : \_\_\_\_\_

**한글날 맞이 동서 백일장에 도전하세요!**

한글은 우리의 문자 생활에 있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글날을 기념해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느껴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어떨까요? 동서대 신문사에서 한글의 우수함과 한글날을 기념하기 위해 백일장을 개최합니다. 동서 백일장을 통해 여러분의 생각과 이야기를 한글로 표현해 보세요!

○ 참가부문: 운문(시, 시조), 산문(수필)  
○ 참가방법: 학과/학년/이름/연락처를 기재해 작품과 함께 ymacom10@gmail.com 또는 010-6771-8237으로 보내주세요.

※ 10월 29일까지 접수된 작품 중 최우수 작품으로 선정되신 분은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 당첨자는 10월 30일에 개별 통보합니다. 많은 응모 부탁드립니다.  
※ 최우수 작품은 동서대학보 다음호(176호) 8면에 실리게 됩니다!